

2022  
No.115



# KOREA UNIVERSITY

##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14년 연속 수상  
[스스로학습시스템]



10년 연속 수상  
[재능스스로수학]



9년 연속 수상  
[생각하는피자]

#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스스로 하면 재밌다. 쉽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재밌다.  
자신감이 붙고 집중력도 생긴다.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아이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재능교육**



**JEI** 재능교육

스스로학습으로 키워가는 미래, 재능방송·인천재능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재능그룹 회장 박성훈 (상66)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2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 행 사 명            | 장 소                                 |
|------------------|------------------|-------------------------------------|
| 2월 25일(금) 14:00  |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 온/오프라인 방식                           |
| 3월 24일(목) 18:30  | 상반기 상임이사회        | 비대면 서면회의                            |
| 4월 23일(토) 09:00  | 제10회 걷기행사        | 취 소                                 |
| 5월 9일(월) 12:00   |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 아시안라이브                              |
| 7월 초 18:00       | 야구부 후원금 전달       | 총교우회 주관 장소                          |
| 9월 21일(수) 12시경   | 골프대회(전 교우)       | 미 정                                 |
| 10월 6일(목) 12:00  |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 미 정                                 |
| 10월 20일(목) 18:30 | 하반기 상임이사회        | 미 정                                 |
| 10월 29일(토) 18:00 | 고연전 뒤풀이 축제       | 참살이길                                |
| 12월 1일(목) 18:20  |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br>서울 파르나스<br>(그랜드볼룸 5층) |



#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제34대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취임
- 07\_ 제33대 교우체육회장 취임
- 08\_ 명예교수 사은회
- 10\_ 고대상징 수목 식수행사
- 12\_ 호상건립 주역
- 16\_ 교우 동정
- 17\_ 교우 기부
- 18\_ 교우 인터뷰
- 23\_ 교우 기고\_수필
- 28\_ 교우 기고\_여행기
- 37\_ 교우 기고\_시
- 38\_ 교우 기고\_칼럼
- 39\_ 학번별 소식
- 54\_ 고대인의 날
- 57\_ 모교 소식
- 60\_ 경영대 소식
- 62\_ 회비납부 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2 통권 제115호 Vol.37

발행일 2022년 6월 27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경영대학 교우회장  
편집인 신학기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 제34대 교우회장에 승명호 교우 취임

교우회장 (무역74)

승명호



##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



교우회(회장=구자열)가 3월 29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4대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으로 승명호(무역74) 동화그룹·한국일보 회장을 선출했다. 승명호 교우는 지난 3월 16일에 개최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구자열)에서 만장일치로 제34대 교우회장 후보에 추대됐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고 교우회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35만 교우들을 이끌게 됐다.

총회에는 정진택 모교총장, 어운대(경영63) 제15대 모교총장, 이기수(법학65) 제17대 모교총장, 이재필(간호75) 여자교우회장, 문규영(농학70) 아주그룹 회장, 권오섭(지질78) 고대경제인 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우회 대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유경선(중문80)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축하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구자열 제33대 교우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교우회 시스템 전산화 사업, 교우정보 업데이트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 교우회 기본 재산 증가 등 임기 3년간의 성과들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해준 교우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취임 시

가졌던 포부를 마음껏 펼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새로 출범할 제34대 회장단이 교우회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교우회의 일원으로서 여려분과 더욱 가까이 함께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승명호 제34대 교우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폭넓고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교우회’,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봉사하고 기여하는 교우회’, ‘재학생과 졸업생을 잇는 강한 연결고리가 되어 모교와 하나 되는 교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제33대 교우회에서 지난 3년간 이룬 여러 성과들을 디딤돌 삼아, 우리 교우회가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진택 모교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모교와 교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자열 제33대 교우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승명호 회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면서 교우회와 학교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교우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제621호 교우회보 기사 인용

퇴임회장 이임사



구자열

제33대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우회가 되길

오늘로 저는 제33대 교우회장 으로서의 임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선후배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진 못했지만 보람도 많이 얻었습니다. 교우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교우정보 확보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교우단체들과도 부지런히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의 힘으로 교우회 기본재산의 비약적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회장으로서 제가 얻은 보람과 성취는 모두 교우님들의 동참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승명호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34대 회장단이 우리 교우회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하기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랑스런 교우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선후배 교우님들의 사랑과 참여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신임회장 수락연설



승명호

제34대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 자랑스런 교우회 전통 이어나갈 것

고려대학교 교우회 제34대 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임 구자열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교우회장님들께서 훌륭히 일구어 오신 성과들에 힘입어 자랑스런 교우회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교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교우들이 폭넓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실질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교우회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교우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우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교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모교와 하나 되는 교우회”로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잇는 강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정신 함양의 중심축으로서 교우회가 담당해온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고대 DNA’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우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명하신 선후배 교우님들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우체육회장 (경영74)

정 몽 원

## 제33대 고우체육회 회장에 정몽원 경영대 교우회 명예회장이 취임하였다.



고우체육회(회장=오규상/법학75)는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 교우회관에서 2022년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으로 정몽원(경영74) 한라그룹 회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몽원 회장의 임기는 2025년까지 3년이다. 오규상 전임 회장은 2016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된 2022년 2월까지 5년 임기를 마쳤다.

정진택 총장을 포함해 65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는 고우체육회장 승인 및 추인, 취임을 안건으로 진행됐고 정몽원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정몽원 고우체육회장은 “신뢰받는 고우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고우체육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우체육회는 모교 출신 스포츠인들의 모임으로 1948년 창립됐다.

정몽원 회장은 만도 위니아(현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한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아이스하키를 위해 헌신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아이스하키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202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지난 5월 29일 핀란드 탐페레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된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 참석해 지도자나 행정가로서 아이스하키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칭호인 ‘빌더(Builder)’ 부문에 아시아인으로선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 명예교수 사은회



“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활기를 기원합니다. ”





2022년 5월 9일(월) 오후 12:00, 경영대학 교우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아시안라이브에서 명예교수 사은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20년~20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은사님을 모실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점점 진정되어 감에 따라 신록의 계절인 5월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담아 오찬 모임을 마련하였다.

명예교수 26분 중에서 건강문제와 선약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17분을 제외하고 9분(지 청, 신수식, 남상구, 황규승, 윤영섭, 이장로, 이진규, 유관희, 문형구 명예교수)이 모임에 참석했다. 조성호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한 감사말씀을 전하였고, 지 청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한 모든 분들은 건배사로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 좌담으로 개인적인 근황, 최근의 경제문제, 사회 전반의 동향 및 송기철, 유세환, 이준범 은사님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현재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 도지사로 계시는 이진규 명예교수는 나중에 사무실에 들르면 기념으로 함경남도 명예도민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분위기는 오찬 내내 화기애애하였다.

교우회에서는 조그만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약소한 선물을 준비하였고 조성호 회장 직무대행은 개인적으로 홍삼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교우회에서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오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신 은사님 17분께는 약소한 선물을 택배를 이용하여택으로 배송해 드렸다.

조성호 회장 직무대행은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지 청 명예교수



... 신수식 명예교수



... 남상구 명예교수



... 황규승 명예교수



... 윤영섭 명예교수



... 이장로 명예교수



... 이진규 명예교수



... 유관희 명예교수



... 문형구 명예교수



조성호 회장 직무대행



## 경영대학 고대상징 수목 식수행사 진행

경영본관 앞, 고려대 역사가 담긴 세 종류의 수목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4월 5일(화) 오후 5시부터 경영본관 앞 야외광장에서 고대상징 수목 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목 조성을 후원해준 경영대 809 모임(경영대학 80학번부터 89학번 교수 모임)이 참여하여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

1905년 이재학과에서 상업학을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국내 경영학 교육을 선도해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역사성과 예술성의 함양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목 조성을 포함하는 '역사성 정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 과제를 통하여 외형 중심의 성장에서 질적인 내용물을 채우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목 조성 등을 통한 구성원 간의 역사의식 함양과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2021년 6월부터 경영대학 역사문화위원회에서는 경영본관 앞 주변에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수목을 조성하고자 논의를 시작하여 2021년 12월 조경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마침내





2022년 3월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수목(오얏나무, 회화나무, 잣나무)을 식재하였다.

정진택 총장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 더욱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주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이번 식수행사는 고려대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부터 이어온 고려대학교의 역사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역사성과 예술성 함양을 통하여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상징적인 수목조성을 통해 고려대학교 역사성이 함양되고 학문이 융성해지며 인격과 실력을 갖춘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대 809 모임의 여용동 회장은 “오늘 심은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역사성과 자부심”이라며 “우리 모임은 안으로는 유대관계를 강화, 친목을 다지고 밖으로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는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우리회원 73명이 가까이 참여하여 후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여 회장은 “40여 년 전 캠퍼스에서 미래를 꿈꿨던 우리가 이제 후배들에게 그 꿈을 이어가도록 나섰다. 우리 809 회원들도 오늘 행사의 의미를 되새겨 자랑스런 고대 교우로 서 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얏나무는 모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상징이자 대한제국의 황실 문양이었던 오얏꽃을 피우는 나무로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뿌리 깊은 연관이 있는 나무이다. 이번에 식재된 오얏나무는 이선용



(경영80/베어트리파크 대표)가 청주 유매지역에서 자란 100여 년 된 나무를 구입하여 기증하였다. 또한 고려대를 상징하는 또 다른 나무인 회화나무는 흔히 학자수(學者樹, Scholar Tree)라고 불리는 나무이다. 그러나 이번 회화나무 식재가 특별한 이유는 보성전문학교 옛터인 現 조계사 터에 위치한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78호인 대웅전 앞 회화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한 후 덕소농장에서 발아시켜 묘목으로 성장시킨 나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나무는 1968년 재단 이사회와 교무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고려대학교의 교목인 잣나무이다.

# 고려대학교를 기록하다

“민족의 상징이자 교시탑인 호상,  
우리 손으로 세우자 결의했죠.”



호상건립 주역 정재훈 교수

1965년 세워진 호상(虎像)은 학생들이 발의하고 성금을 모아 건립됐다. 당시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정재훈(경영61) 교수가 최근 호상 건립 당시의 사진자료를 모교에 기증했다. 정 교수는 1977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6개월 전 귀국했다. 해군 사관학교 15기생이었던 그는 4학년이던 1960년 7월 혼란한 사회상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생도들과 함께 상경하다가 대구에서 체포돼 퇴학을 당했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이 희봉(보전법과31회) 법과대 교수의 권유로 편입 시험을 치르고 모교에 입학했다.

“고려대학교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학교였어요. 내가 성장 할 곳이라는 마음으로 학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 1905년 이용익 선생이 어떤 외세의 힘도 빌리지 않고 민족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설립한 학교였어요.”

정 교수는 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 대학이라는 상징이 본관 기둥에 새겨진 작은 호랑이 뿐이라는 게 아쉬웠다.



**3 졸업식** | 1965년 2월 25일 호상 준공식에 앞서 열린 졸업식에서 정재훈 교수가 유진오 총장(왼쪽)으로부터 호상 모형의 공로패를 받았다.

**4 호상 기공식** | 1964년 7월 15일 호상 기공식. 앞줄 맨 왼쪽은 민복진 조각가, 다섯 번째 유진오 총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재훈 교수





2



3



**1 상량식** | 1964년 12월 18일  
상량식. 앞에는 고사상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지구본 위쪽으  
로 향아리 모양의 주머니를 흰  
끈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재  
훈 교우는 호상 건립 관련 원본  
을 지구본 안에 넣어 보존했다  
고 말했는데 이 장면으로 추정  
된다.

**2 상량식 날 재학생들** | 상량  
식 날 호상에 올라선 학생들. 맨  
꼭대기 오른손을 치켜든 이가  
정재훈 교우

1963년 말 학교 심벌이자 교시탑(校是塔)으로 호랑  
이 상을 우리 손으로 세우자고 발의하고 이듬해 추  
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교우가 회장을 맡고 천신  
일(정외61), 이경우(법61) 교우가 부회장, 총학생회  
장이던 구자신(경제61) 교우가 명예회장을 맡았다.  
유진오 당시 총장은 학생들이 학교 상징물 건립에  
나선 것을 격려하고 학교차원에서 기금 모금이 가  
능하도록 했다. 호상 건립은 개교 60주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호상 제작이 가능했다. 총 모금액은  
240만원. 호상건립에 176만 5000원을 쓰고 잔액은  
모두 장학금으로 조성했다.

가공식은 1964년 7월 15일, 상량식은 12월 18일, 제  
막식은 1965년 2월 25일 졸업식 직후에 거행됐다.  
호상 제작은 4·18 기념탑을 조각한 민복진 작가가  
맡았다. 정 교우는 민 작가에게 지구 등을 올라타고  
포효하는 호랑이를 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라  
미드 형태의 축대와 '자유·정의·진리'를 상징하는  
세 사람(그중 진리는 여성상) 조각도 그의 아이디어  
라고 한다.

그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조지훈 선생이 호상비문  
을 써주셨다. 민복진 작가가 상량식 때 관련 원본  
문서들을 지구본 안에 넣었다고 말했는데 어떻  
게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 교우는  
호상 건립 과정을 담은 귀한 사진 76점과 졸업식  
에서 공로패로 받은 호상 모형 트로피를 모교 박  
물관에 기증했다.

제622호 교우회보 발췌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 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  
너 항상 여기에 자유의 불을 밝히고  
정의의 길을 달리고 진리의 샘을 지키느니  
지국을 백차고 포효하거라  
너 불타는 야망 젊은 의욕의 상징이  
우주를 향한 너의 부르짖음이  
민족의 소리되어 메아리치는 곳에  
너의 기개 너의 지조 너의 예지는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조지훈







■ 교우동정



**승명호 (무역74)**

2022년 3월 29일 승명호 교우가 고려대학교 교우회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상태 (경영83)**

2022년 3월 22일 김상태 교우가 신한금융투자 GIB(글로벌투자금융) 총괄대표로 취임하였다.



**정몽원 (경영74/명예회장)**

2022년 5월 18일 정몽원 교우가 제33대 교우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정호 (무역85)**

2022년 5월 27일 김정호 교우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황성철 (경영75)**

2022년 3월 29일 황성철 교우가 제34대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임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김완섭 (경영87)**

2022년 6월 7일 김완섭 교우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선임되었다.



**추경호 (경영79)**

2022년 5월 10일 추경호 교우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최동천 (무역87)**

2022년 5월 27일 최동천 교우가 마스터카드 동북아 대표로 선임되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재원(무역71)** 2022년 5월 15일 아들 옹훈 군  
**이웅열(경영75)** 2022년 7월 6일 장남 규호 군  
**박재완(경영78)** 2022년 5월 8일 차녀 재민 양  
**이정열(경영78)** 2022년 6월 4일 아들 창엽 군  
**이재은(경영78)** 2022년 5월 21일 차녀 유영 양

**조기환(경영78)** 2022년 5월 22일 장녀 혜진 양  
**진용주(경영79)** 2022년 4월 30일 딸 수연 양  
**황일운(경영79)** 2022년 5월 28일 딸 지영 양  
**정의선(경영89)** 2022년 6월 27일 장녀 진희 양  
**허성민(경영10)** 2022년 5월 22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은양(상55)** 2022년 4월 12일 본인 별세  
**유영호(경영55)** 2022년 6월 15일 본인 별세  
**홍순옥(상56)** 2022년 4월 7일 본인 별세  
**김상옥(경영57)** 2022년 4월 9일 본인 별세  
**이재영(상61)** 2022년 5월 23일 본인 별세  
**손서신(경영78)** 2022년 4월 22일 모친상

**조계성(경영78)** 2022년 6월 14일 모친상  
**이왕규(경영78)** 2022년 6월 1일 부부상  
**최성민(경영88)** 2022년 4월 22일 모친상  
**김홍석(경영96), 한선희(경영97)** 2022년 5월 3일 모친상, 시모상  
**신희수(경영00)** 2022년 6월 13일 본인 별세(통보받은 날짜)





## 윤영연 동덕여대 前 부총장, 모교 경영대학에 기부

고려대학교(총장=정진택)는 5월 26일(목) 11시 45분 본관 총장실에서 윤영연 동덕여대 前 부총장과 '경영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식'을 열었다.

윤영연 前 부총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58학번으로, 동 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로서 대통령 임명 국영기업체 특명 감사단 감사인, 고려대 상과대 연구전임강사로 활동했고, 1979년부터 동덕여대 사회과학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동덕여대 대학원장, 교무처장을 거쳐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동덕여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회계 발전의 역사적 고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로 대한민국 회계 분야 발전을 이끌고 후진을 양성한 공로로 동덕여대 명예교수에 추대되었다.

기부식에서 윤영연 前 부총장은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마음의 고향이다. 고려대학교 117년의 역사와 함께한 경영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고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

벌 최고의 명문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정진택 총장은 “1905년 이재학과를 모태로 출발해 국내 경영학 교육을 선도해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회(EFMD)가 수여하는 EQUIS 경영교육인증에서 3회 연속 5년 인증에 성공하고,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 학위 전 과정에 걸쳐 세계 경영대학협회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했으며,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CEMS Global Alliance에서 국내 유일 정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초(The First) & 국내 최고(The Best)' 경영대학으로서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일생을 후진 양성과 회계학 발전에 헌신해 주신 윤영연 교수님께서 지난 2010년 신경영관 건립기금에 이어 또 한 번 경영대학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니 감사하다. 경영대학은 2030년까지 아시아 1위, 세계 30위권 경영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로 연구·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5월 30일자 대외협력처 기사 발췌



## 와이즈리컴퍼니

김 동 욱

대표이사

경영08



## 현명한 소비를 돕고 소비재 시장을 올바르게 바꾼다.

### Q1. 교우님과 교우님의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이즐리컴퍼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08학번 김동욱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창업되었고 면도기, 화장품, 헤어제품 및 영양제 등 생활 용품을 판매하며 보통 이러한 업종을 D2C 커머스라고 합니다. D2C는 Direct to Consumer의 약자이고 '중간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마트에 가거나 쿠팡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당연히 제조사와 유통사가 달라서 대부분 판매가격의 약 50~60% 정도의 유통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중간 유통비용과 마케팅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제품의 품질개선에 투자하자는 개념하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트렌드로 인하여 이러한 D2C 커머스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났는데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 Q2. 예전에 비해 창업이 쉽지 않은데요,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경영대학내 학회 중 하나인 경영학회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을 공부하는 학회였는데, 군대 제대 후 복학하고 바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학회에 가입하여,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 있는 선배들도 만나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고 싶다.'정도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유아복을 팔아보았지만 학생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결국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그래도 사업이 더 재미있으니 다시 한 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나서 다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쌓았던 업무 경험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해외로 파견 나가시느라 비우신 집을 개조해서 물류센터로 쓰고 창업자들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Q3. 생활용품 회사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유아복을 팔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옷에 관심이 없고 아이도 없는 20대 남성이어서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는 소비자로서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활용품 쪽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살다가 법대 후문 쪽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생활용품을 사다보니 면도기가 비쌌습니다.

소비자로서 느꼈던 불편함이었던 거지요. 면도기는 특히 매출 원가율이 5%도 안 되는 등 독과점 구조가 심하고 비쌀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가 바꿔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면도기의 가격에 대한 불편함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간단히 시작했더니 고객 분들이 화장품, 탈모샴푸 등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주셨고 면도기처럼 다른 업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Q4.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창업은 학생 시절 조금 경험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법률문제, 투자유치, 사업을 잘 풀어가는 것 자체 및 직원채용 등 처음 해보는 업무가 많아서 너무 어려웠었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저에게는 예상 밖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약 50여 명 정도인데 각자 다른 강점과 목적의식, 업무스타일이 달라서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의 짧은 커리어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점이 항상 어려웠고, 창업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 Q5.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초반에는 저 혼자 일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그날 보내야 되는 택배박스를 접다가 어느 날 60대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 분께서 고객센터인 저희 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명 브랜드 중 질레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판매하는 면도기가 질레트보다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쟁사여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대신 “질레트를 쓰시던 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좋은 면도기를 쓰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광고를 보면 독일산 면도기처럼 좋은 품질인데 이렇게 저렴한 게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와이즐리컴퍼니라는 회사는 처음이고 믿을 수 없어서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물품을 보내드리기 위해 배송지 주소를 인터넷 지도로 찾아보니 가건물에 거주하셔서, 생필품인데 매번 구입하실 때마다 부담이 크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도기는 남자라면 누구나 매일 사용하지만 저는 ‘비싸서 불편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들과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때 저희도 창업한 보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보통 고객센터는 배송이 잘못 왔다는 등, 불만을 얘기하러 오는 곳인데 어떤 분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경영 이념대로 판매되는 제품이 좋게 느껴져서 본인이 열심히 알리고 있으니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대표님께 전해 달라.”고 연락하셨는데, 그런 고객분들의 응원을 직원끼리 공유하면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 Q6. 와이즐리컴퍼니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다. 중간에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서 고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한다. 누구나 현명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사치하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Q7.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강의를 있으시요?

교수님들 중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분은 저희 학회 지도교수님이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김익수 명예교수님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교수님과의 술자리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교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말씀과 조언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영론 수업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 각자 고민해서 발표해보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 일을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흥미를 느꼈고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Q8.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업을 꿈꾸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분들이 가지는 환상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환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나지 않은 재





능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도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 뛰어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에서 재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패턴이 비슷해도 창업자들 각자의 강점이 다르듯, 스타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반대로 어떤 위대한 창업자도 단점이 없는 창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세상에는 롤모델이 되는 위대한 창업자가 많지만 그분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스타일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Q9.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교우님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학교친구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면도기 사업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호텔에 납품할 물건을 살펴보다가 저희 제품을 발견하고 상사를 설득해서 저희 제품을 납품 받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면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로부터 우연히 이와 유사한 도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의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이 사업을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좋은 모습이 있으면 많이 칭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나 따끔한 피드백을 주시면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노마의 지혜 (老馬의 知慧)



### 이 득 주

경영55, 前)서울사세청 (現 서울지방국세청) 前)재무부 (現 재정경제부)에서 근무

**역서** 이란의 공기업, 공기업의 재무관리 실제와 중앙정부예산과의 관계(UN자료)

노인은 현 시국에 폐기처분된 존재이다.

젊은이는 행동의 민첩성, 역센 힘, 확실한 시력, 정확한 청력, 총명한 기억력과 끈질긴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귀중한 경험이고, 또 하나는 지나온 세월로부터 생성된 지혜이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처럼 지구력, 적응력 등은 약하지만 오랜 생활 사업 활동을 한 경험과 과거를 통해 얻은 지혜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최단시간에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은 장기간의 결정체이고,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축적물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창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기에 군마(軍馬)와 함께 병력이 숲이 우거진 광야를 누비며, 행군을 하다 길을 잃었다. 숲이 우거져서 길을 잃었다고 지휘부에 보고를 하니, 지휘부의 한 노병(老兵)이 “늙은 말(老馬)을 앞에 세워라”라고 교시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늙은 말(老馬)이 길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것이다. 이 어찌 노병(老兵)과 노마(老馬)의 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현대 재벌 총수이었던 고(故) 정주영 회장께서 회의석상에서 ‘빈대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써라”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셨다는 일화는 웬만한 사람은 다 들은 이야기이다. 이 시대를 사는 후진들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교훈임에 틀림이 없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교육하며, 가통을 이어가고 기업(起業)을 하여 사회에 공헌한 후 퇴직을 하고, 쇠약해지면서 생활의 변화, 신체의 변화로 과거에 없었던 병마와 싸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겪어야 할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러할진데, 선인(先人), 노년(老年)의 지혜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이다.

선인들, 노인들을 단순히 진부(obsolescence)화된 존재로 치부해서 폐기처분하면 선진사회 건설에 진요하게 쓰일 아까운 재산과 재료를 일거에 없애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인(老人), 노마(老馬)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흡입 계승하여 사회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가 사회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 진정 현명한 일이 아닐까?



## 맞장 뜨기



황 인 강  
상61 · 수필가

지지난 해 여름은 유별나게 더워 연일 땀별이 계속 이어졌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상청 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는 내리지 않고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수은주가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사십년 만에 찾아온 ‘가마솥더위’를 경험한 우리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하나 걱정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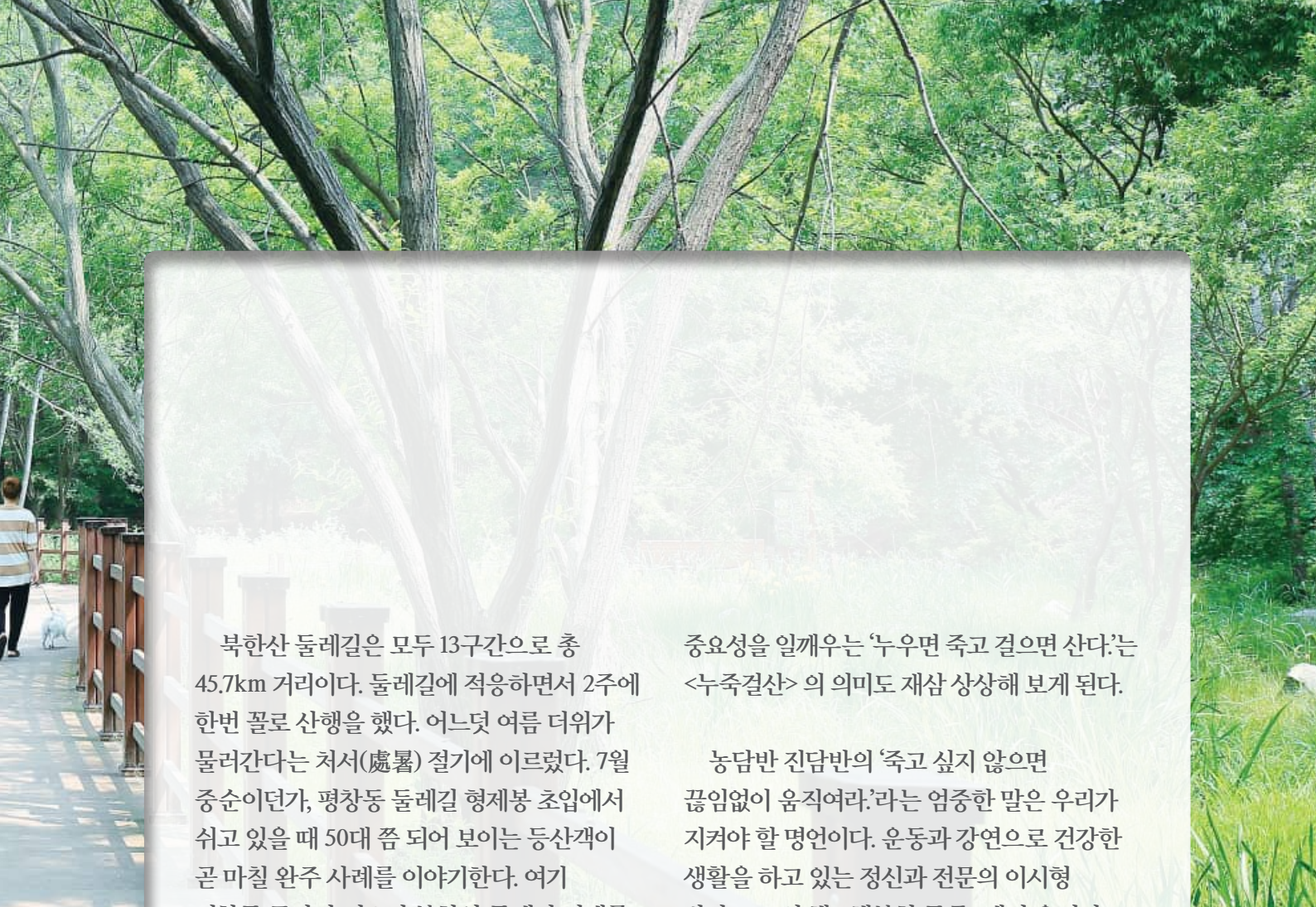
세계 어디서나 모든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홍수든 추위든 사고든, 모든 부분이 대형이고 극단적이다. 더위로 세계 각국에서 열사병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로 주택과 차량이 날아가고, 엄청난 홍수가 밀어닥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캐나다의 어느 지역은 10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와 눈 폭탄으로 야단이고,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해류에 변화를 가져와 가뭄, 홍수, 초대형 허리케인과 같은 재앙을 불러와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줄이는 운동을 벌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또다시 찾아 올 금년의 더위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여름이면 필수품이었던 부채나 선풍기로 더위를 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고 냉방시설이 된 공간에서나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랴.

젊은이들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겠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정말이지 여름나기를 상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걱정 아닌가. 더위에 지지 않으려고 극단의 방법이라 할 이열치열(以熱治熱)식 방법이, 용기가 따르기는 하지만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한다. “더위야 와라, 나는 지지 않겠다.”며 돈키호테식 대응으로 산으로 향했다. 그해도 이 방법으로 여름을 이겨냈다. 둘레길은 산 아래쪽에 조성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위험하지도 않고 더위와 맞서는데 제격이다. 짹짹이 시간을 내어 북한산 둘레길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전체 구간을 완주했다.





북한산 둘레길은 모두 13구간으로 총 45.7km 거리이다. 둘레길에 적응하면서 2주에 한번 꼴로 산행을 했다. 어느덧 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處暑) 절기에 이르렀다. 7월 중순이던가, 평창동 둘레길 형제봉 초입에서 쉬고 있을 때 50대 쯤 되어 보이는 등산객이 곧 마칠 완주 사례를 이야기한다. 여기 평창동 구간만 걸으면 북한산 둘레길 전체를 다 걷는다고 스탬프를 찍은 인증서를 내게 보여준다. 여덟 사람이 하기 힘든 장할 일을 해냈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신기해 보이기도 했다. 얼마쯤 지나 쉼터에서 쉬고 있는 80중반의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났다.

그분도 한바탕 자기 자랑을 했다. 자기는 여기 정릉구간을 마치면, 서울외곽 전체 둘레길 157km를 다 마치게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고 겸손한 모습의 그분은 체력이 무척 강건해 보였다. “걷기를 꾸준히 했더니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라며 나에게 열심히 산을 오르라고 조언도 해주었다.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이구나.’ 싶기도 하고, 등산을 제 몸 사랑하듯 해맑음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건강해 보이는 인상이 그대로 묻어난다. 걷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누죽걸산>의 의미도 재삼 상상해 보게 된다.

농담반 진담반의 ‘죽고 싶지 않으면 끊임없이 움직여라.’라는 엄중한 말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언이다. 운동과 강연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도 그의 책 <행복한 독종>에서 움직이고 걷거나 목표에 대한 의욕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고 장담을 한다. 옛 조상들은 여름나기를 위해 통쾌할 정도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더위를 식혔다. 땀벌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렸다. 역시 조상님들의 슬기로움에서 더위는 물론 건강과 무탈한 생활의 비결도 자연에 맞서면서 지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무더운 날씨에 걷기를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주위에서 걱정을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레길을 걸으면 그에 맞는 더위 이겨내기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를 내려놓아도 좋을 듯싶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하는 역설적인 권유와 온전히 맛장 뜨는 것도 한여름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감히 외치고자 한다.



## 현민(玄民) 선생님

김 종 순  
경영62

“박정희(남로당 사건 때) 죽어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찌꺼음 바뀝니다.”라고 말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외할아버지는 제헌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유진오 전 신민당 총재다.(조선일보기사)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대학 입학식 날이다.  
입학을 위한 축사에서 “학생 제군은 이 민족의  
쌈이 되어야 한다. 이 사회 이 민족의 앞날을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인간의 가치도 높여야 하고,  
높은 꿈을 가지고 노력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학생’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곁에 현민 선생님이 서 계신다. 나는 구름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을 때였다. 석양은 서서히 캠퍼스 언저리에  
와 석탑의 그림자를 드리내고, 仁村(인촌) 선생님의  
동상 아래는 푸른 잎새의 잔디들이 너울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언덕에 핀 라일락 꽃 내음은 온 교정에  
퍼져 오월의 향기를 더해 주었다. 선생님은 그때  
우리 대학 총장님이셨고, 퇴근하시기 전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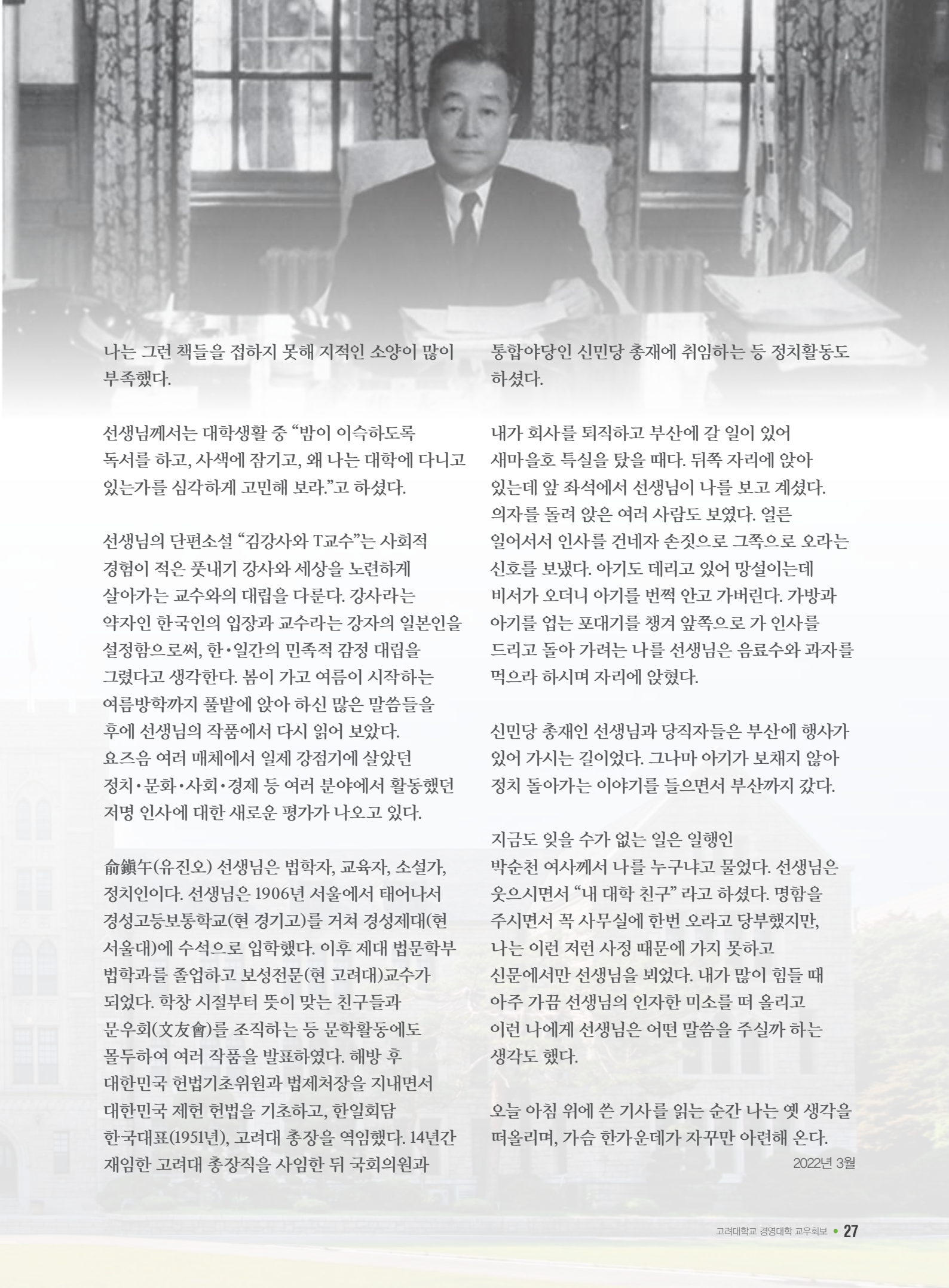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란 나는 도회를 잘 모른다.  
서울이라는 생소한 곳에는 일가친척이나 친구도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마저 저녁을 먹으러 나간 교정에 늘 혼자  
앉아 부모님과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잔디밭에 앉아있는 내가 눈에 띄어,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다. “학교생활이 어때? 불편한 점은?”  
특히 수많은 남학생들과 적은 숫자의 여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일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일들을 자상하게 물으셨다.

나는 그날 그날 겪은 일들을 마치 동네 아저씨와  
말하는 것처럼 손짓 발짓 해가며 신나게 설명드렸고,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로 대답을 하셨다.

교양과목인 철학이나 심리학은 문리대생과  
합반으로 강당에서 공부를 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의가 끝나면 몰려나오는데, 어느 날  
강의실 밖에서 어느 남학생이 청개구리 한 마리를  
내 옷 속으로 던져 좋아라 하며 도망갔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신나 했다, 옷에서  
개구리를 떼어내다 그 남학생을 놓쳐 항의를 못해  
억울했던 일을 말하고, 서울말을 하는 남학생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노래 한 번 불러보라고, 노래도  
경상도 사투리로 하느냐고 귀찮게 따라다니며  
놀리던 일, 상학 개론 수업시간에 증권거래소에  
견학 갈 때에는 경영학과 대표가 단체로 교통비를  
부담하고, 끝나고 돌아올 때 지갑을 지니지 못한  
나는 차비가 없어 명동에서 안암동까지 걸어와,  
구두를 신은 발에서 물집이 생겨 고생했던 일을,  
교양 국어 강의를 하시는 조동탁 선생님이 청록파  
시인 지훈 선생님이란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서책들은 거의가  
漢書(한서)였다. 현대판으로 읽을거리는 월간지  
사상계와 신문밖에 없었다. 거제 섬 안에 서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빠나 언니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는 집에서는 이광수의 사랑이나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책들을 읽어 볼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그런 책들을 접하지 못해 지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대학생할 중 “밤이 이슬하도록 독서를 하고, 사색에 잠기고, 왜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단편소설 “김강사와 T교수”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풋내기 강사와 세상을 노련하게 살아가는 교수와의 대립을 다룬다. 강사라는 약자인 한국인의 입장과 교수라는 강자의 일본인을 설정함으로써, 한·일간의 민족적 감정 대립을 그렸다고 생각한다.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하는 여름방학까지 풀밭에 앉아 하신 많은 말씀들을 후에 선생님의 작품에서 다시 읽어 보았다. 요즘은 여러 매체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정치·문화·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저명 인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俞鎮午(유진오) 선생님은 법학자, 교육자, 소설가, 정치인이다. 선생님은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를 거쳐 경성제대(현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후 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현 고려대)교수가 되었다. 학창 시절부터 뜻이 맞는 친구들과 문우회(文友會)를 조직하는 등 문학활동에도 몰두하여 여러 작품을 발표하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제처장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기초하고, 한일회담 한국대표(1951년), 고려대 총장을 역임했다. 14년간 재임한 고려대 총장직을 사임한 뒤 국회의원과

통합야당인 신민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정치활동도 하셨다.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부산에 갈 일이 있어 새마을호 특실을 탔을 때다. 뒤쪽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 좌석에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의자를 돌려 앉은 여러 사람도 보였다. 얼른 일어서서 인사를 건네자 손짓으로 그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기도 데리고 있어 망설이는데 비서가 오더니 아기를 번쩍 안고 가버린다. 가방과 아기를 업은 포대기를 챙겨 앞쪽으로 가 인사를 드리고 돌아 가려는 나를 선생님은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라 하시며 자리에 앉혔다.

신민당 총재인 선생님과 당직자들은 부산에 행사가 있어 가시는 길이었다. 그나마 아기가 보채지 않아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산까지 갔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은 일행인 박순천 여사께서 나를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내 대학 친구” 라고 하셨다. 명함을 주시면서 꼭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당부했지만, 나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고 신문에서만 선생님을 뵈었다. 내가 많이 힘들 때 아주 가끔 선생님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고 이런 나에게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도 했다.

오늘 아침 위에 쓴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옛 생각을 떠올리며,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만 아련해 온다.

2022년 3월



# 이베리아반도

## 여행기

### 4



#### 허창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 11월 29일(수) - ① 현지 여행 5일째다. 그라나다

호텔에서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호텔을 나와 알람브라 궁을 관광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출발한 것은 알람브라궁의 입장 시간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쇄도하는 관광객 때문에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입장객 수를 한정하기 때문에 예약시간에 대지 못하면 영영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헤네랄리페(Generalife)궁이었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감히 천국의 입구라고 말해도 좋을 그 정원 입구의 위용, 여기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측백나무들이 몇 겹으로 정연하게 줄지어 하늘을 향해 자웅을 겨룬다. 세월의 무상함을 비웃듯이, 오염된 세상을 꾸짖듯이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들에 나는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없이 왜소해져서 차라리 한동안 오염하고 싶었다. 고색창연한 듯하면서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저들의 모습이 범속한 인간들에게 갈 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저들의 경주는 언제 끝날





헤네랄리페궁의  
아세끼아 정원 분수

것인가? 이미 천년이 지난 장거리 경주는 끝날 날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인류의 미의식을 위해 영속해야 할 것이다. 이 정원은 본 궁전과는 조금 떨어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헤네랄리페라는 뜻은 '건설자의 정원'이라는데, 이 궁은 왕의 여름별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여름 궁전은 대부분 파괴되어 두 개의 소 궁전만 남아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세끼아 정원(Patio de Acequia)이 나왔다. 아세끼아란 수로라는 의미란다. 인공연못이라고도 할 만한 수로를 만들어놓고 양옆에는 분수를 만들어 분수는 지금도 쉴 새 없이 반원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다. 수로 양옆에 놓인 화분에는 화사하기도 하고 조촐하기도 한 갖가지 꽃들이 미모를 뽐내고 있다.

이 지방은 사막성기후라 물 부족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저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수로를 이용하여 운하를 만들고, 수조와 분수를 만들고, 정원의 나무와 화초를 기르는데 썼다고 한다. 또 이 물로 무슬림들은 목욕을 즐겼다. 오늘날 터키 탕의 명성이 알려진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슬람 왕국이 마지막 항거를 포기한 것도 물 때문이었다. 기독교도들은 이슬람 왕국에 6개월의 시한을 주고 그라나다에서 완전히 퇴각하라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그들이 정성 들여 설치해놓은 수로를 차단하여 물 공급을 막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생명줄을 끊었던 것이다.

다시 알람브라 궁전 본궁으로 들어간다. 누에바 광장에서 언덕길을 올라가면 궁전 최초의 문인 재판의 문(또는 정의의 문)이 나타난다. 말굽 모양의 위쪽 아치에 코란 5계명을 나타내는 다섯 개의 손가락이 조각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면 알히베스 광장이 나오고, 우측에 르네상스 양식의 카를 5세 궁전이 나온다. 카를 5세(신성로마제국 카를로스 1세)는 파괴된 알람브라 궁전의 일부를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했고, 이탈리아풍의 궁전을 지었으나, 1755년의 대지진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 건물은 지금 알람브라 박물관과 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오직 한 분 신만이 승리자이다'라고 새겨진 포도주의 문을 지나면 알카사바 요새의 입구가 나온다. 무어왕조의 유물은 알카사바 성곽인데, 거대한 외벽

알카사바 요새



과 탑, 군인들이 기거했던 방과 벽 등이 남아있다. 알카사바 안에 알람브라 궁전이 있고, 궁전 안쪽에 시종들이 살던 알람브라 알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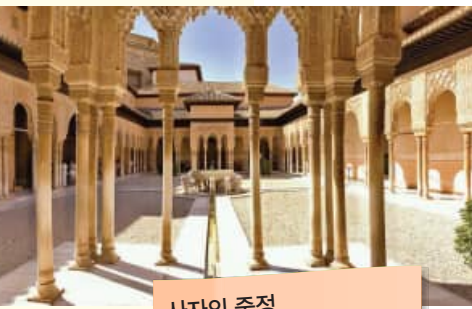
본궁인 나스르 궁은 크게 멕수아르(Mexuar), 코마레스(Comares), 레오네스(Palacio de los Leones: 사자의 궁)





나스르 궁

궁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맥수아르 궁은 천정에서 바닥까지 정교하고 섬세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되어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이나 식물, 기하학적 무늬를 주로 사용한다. 이 궁은 원래 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했던 곳인데, 코마레스 궁과 사자의 궁이 건설된 뒤에는 왕실의 집무실이 그곳으로 옮겨지고 맥수아르에서는 주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의의 문'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재판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궁의 북쪽 메카가 있는 방향에 기도실이 있다. 기도실을 보고 작은 아치문을 나서면 '황금의 방'이 있다. '황금의 방'은 왕의 집무실이었는데, 장의 목재 장식에 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다. 맥수아르와 '황금의 방'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사자의 중정



사자분수

황금의 방을 나오면 코마레스 타워가 보이는 아라야네스 중정(Patio de los Arrayanes)이 나오는데, 7개의 문이 연못에 비쳐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코마레스는 왕의 공식 집무실로 아라야네스 안뜰과 코마레스 안뜰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레오네스 궁이 나온다. 이 궁의 회랑은 124개의 하얀 대리석 기둥으로 되었다. 사자의 중정(Patio de los Leones)은 이 건물의 안뜰이다. 사자의 궁 남쪽에 있는 방은 아벤세라헤스라는 방으로 술탄이 이 방에서 아벤세라헤스 가문의 젊은이 36명을 참살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천장은 8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 모양이고, 수천 개의 증유석이 벽감을 형성해 마치 별집처럼 보인다. '왕의 방'은 아름다운 사각형 천장이 있는 개방형이다. '왕의 방'에서 천장을 보면 무수히 많은 작은 벽감들이 겹겹이 쌓인 '무카르나스 양식'의 천장임을 알 수 있다. '무카르나스 양식'이란 '모카라베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벽감들을 중첩하여 장식하는 기법이다. 그런 장식은 마치 증유석이 가득 찬 동굴을 연상시킨다. '두 자매의 방'은 사자의 중정에서 북쪽에 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두 후궁이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과, 이 방 가운데 놓인 커다란 대리석 두 장을 의인화하여 부른다는 설이 있다. 이 방의 천장은 아벤세라헤스 방 천장과 달리 팔각형의 도형이고, 창문의 배치도 다르다.

아라야네스(도금양, 남유럽산의 상록관목) 중정은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아늑한 정원이다. 아라야네스라는 말에는 '향기롭다'는 뜻도 있고, '천국의 꽃나무'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사자 중정은 힘과 용기의 상징인 12마리의 흰 대리석 사자상으로 떠받친 설화 석고 수반인 사자 분수가 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중정의 북쪽 7개의 아치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탑이 '코마레스 탑'인데, 이것은 이슬람왕조의 국정이 이루어지던 핵심공간이었다. 중정의 서쪽과 동쪽에 있는 3층 건물은 술탄의 부인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여름에는 아래층을, 겨울에는 위층을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배웠다. 1755년 리스본의 대지진의 여파로 포르투갈의 궁전은 대부분 파괴되고, 카를 5세 궁전 및 다른 스페인의 궁전들도 상당수가 무너졌으나, 무슬림들이 세운, 그때까지 보존된 알람브라궁은 큰 피해가 없었다. 그것은 기둥 중간에 납을 끼워 넣어 지진의 충격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당시 그들은 벌써 내진설계를 했었다. 놀라운 과학적 발상이었다. 알람브라궁은 이사벨 여왕의 재임 중에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그 탁월한 건축과 아름다운 정원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여왕은 고급의 문화를 감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 대규모의 파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여 나스르의 관람을 마쳤다. 나스르는 알람브라궁 관광의 핵심이다.

700년 이상 계속된 이슬람 왕국은 1492년 1월 2일 카스티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와 이사벨 왕에게 무혈인계로 끝났다. 싸움 한번 못하고 퇴각하는 이슬람 왕에게 모후는 ‘사내답게 싸우지 못했으니 여인처럼 슬피 울어라.’라는 질책을 하고 먼저 훌훌히 떠났고, 왕은 그 말대로 밤을 새워 통곡했다. 무슬림의 종교와 재산권, 그리고 상권은 유지해달라는 나스르왕국의 최후 통치자 아브 압달라의 항복 조건은 겨우 7년 정도만 지켜졌고, 그 후로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자 그들은 안달루시아 지역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대거 이민 가거나 강제로 개종해야만 했다. 당시 고급 실크 생산지로 유명했던 그라나다는 대량이민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몰락했고, 회복하는데 거의 20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알람브라 궁전도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이 참상을 시인 로스카는 이렇게 읊었다. “여인이여! 그에게 적선하시오. 그라나다에서 눈이 먼 것보다 인생에서 더한 시련은 없을 것이오.”

옛 로마 군인들이 지었다는 광장에 올라 그라나다 시내를 조망했다. 어제저녁에는 불빛만 보였던 알바이신 지역이 보이고, 무엇보다 시내 중앙에 있는 그라나다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었다. 그 밖에도 다수의 흑적색 높은 첨탑들이 지금도 고고의 성을 외치는 것은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향수에 젖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베리아반도에서 마지막 이슬람 왕국을 축출한 페르난도와 이사벨 부부 왕(가톨릭 부부 왕)과, 그들의 딸이었지만 광녀 취급을 받았던 후아나와 그의 남편 펠리페 1세의 영묘가 그곳에 있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족을 붙이자면 펠리페 1세는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에 걸려 말년에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한다.

후아나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스페인왕가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스티야왕국의 이사벨 여왕

그라나다





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은 정략결혼을 하여 두 왕국을 병합하였다. 둘 중에서도 이사벨은 선견 지명을 갖춘 여왕으로 콜럼버스의 원정항해를 후원했으며, 이슬람국가를 이베리아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갑옷과 투구를 벗지 않을 만큼 투철한 여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자식은 왕자 하나와 공주가 넷이었다. 왕자와 셋째 공주는 일찍 죽고, 장녀는 포르투갈 왕자와 결혼하여 떠나고, 막내는 영국 왕자와 결혼했다. 이사벨 여왕은 일찍이 둘째 딸 후아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펠리페 왕자와 결혼시켰다. 그들은 결혼 후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그 남편이 펠리페 1세이다. 이로써 스페인 합스부르크왕가가 시작되었다. 그는 얼굴이 뛰어나게 잘생긴 미남인 데다가 호색한이어서 정무에 소홀했다. 후아나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으나 끊임없이 외도하는 남편에 대한 의부증이 심하여 나중에는 주위에서 광녀 취급을 받은 끝에 어머니 이사벨이 죽은 후 아버지와 남편 등에 의하여 45년간 감금 생활을 했다. 그녀가 풀려난 것은 남편이 죽고 난 후였다. 매장하기 전 꼬박 이틀을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못다 한 사랑과 감금당한 증오를 동시에 불태웠다는 왕녀의 한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우리는 프라도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가 남편의 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그린 영화를 보았다.

다시 왕실의 계보를 더듬어보자.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카를 5세(카를로스 1세)이고, 왕권은 그 아들 펠리페 2세로 이어졌다. 또 그 아들은 마요르 광장을 지은 펠리페 3세이다. 그러니까 카를 5세는 이사벨의 손자이고, 펠리페 2세는 증손자이다.

스페인의 전성기는 펠리페 2세 치세 때이다. 배우자가 포르투갈의 왕녀 마리아 마누엘라여서 1580년 조카인 포르투갈의 세바스티앙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포르투갈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의 배우자가 잉글랜드의 메리 1세여서 잉글랜드의 공동 통치자였다. 1571년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해군을 물리치고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스페인은 식민지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네덜란드, 남미, 필리핀 및 밀라노공국, 부르고뉴공국, 사르데냐섬, 시실리아 섬, 나폴리왕국 등 대부분의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남서부, 인도의 서해안, 말라카, 보르네오 등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최전성기를 누렸다.

그라나다의 관광을 마치고 스페인의 산토리니라는 프리힐리아나로 이동했다. 버스는 꾸준히 산 중턱으로 올라간다. 버스는 숨이 차지 않을까? 어이없는 걱정을 해본다. 그라나다지방은 광대한 시에라네바다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며 옛 빙하 지역이다. 최고봉인 몰아센은 3,479m나 된다. 분지기후여서 여름에는 허를 빼물고 다닐 만큼 덥고, 겨울에는 오금을 펴지 못할 만큼 춥다. 오늘은 날이 흐려 구름이 산맥을 에워싸고 그 전모를 보여주지 않는다. 숨바꼭질하듯 잠깐씩만 고개를 내밀다 사라진다. 들쭉날쭉 흑회색 봉우리들이 감질나게 한다. 이방인이 부끄러워서일까?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우스개는 계속된다. “관광객은 대개 그렇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가노라.’ 제 말이 맞지요?” 우리는 너나없이 실없이 웃는다. 감히 카이사르의 명언을 변용하는 그의 재담은 신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루할 때 지나가는 한차례의 소나기는 되었다.

저 아래 평원에 끝없이 펼쳐지는 올리브 농장! 스페인 들판은 올리브 농장이 아니면 키가 작달막한 소나무 숲으로 덮여있다. 그 사이사이로 사시나무와 미루나무 종류가 노란 단풍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올리브 농장



프리힐리아나 카사블랑카

다만 측백나무만이 하늘이 낮을세라 고향을 지른다. 그리고 간혹 황무지가 보인다.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자세히 보면 소들이 어슬렁거린다. 과연 우공(牛公)들이다.

세계 올리브 생산의 40%를 스페인이 차지한다고 한다. 올리브 나무는 심은 후 15년부터는 수확을 시작하여 수령 5백 년 될 때까지 수확할 수 있다. 그 후로도 1천 년까지 사는데 5백 년이 지난 것은 정원수나 관상수로 옮겨 심는다. 죽은 나무는 가구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주목처럼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의 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스페인에서는 귀족들이 대부분 올리브 농장을 소유하고 경영한다. 이 나무를 심고 키우고 열매를 수확하는데 큰 경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제초할 필요도 없고, 농약을 쓸 필요도 없고, 비료를 줄 필요도 없다. 열매 수확은 평지에서는 트랙터가 나무 사이길로 다니며 나무를 흔들어 나무 밑에 펼쳐 놓은 천 위에 열매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비탈진 곳은 트랙터가 올라갈 수가 없어 인력이 동원된다. 지금은 모로코에서 건너온 부부 인부들이 수확기인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3개월간 일하고, 그 임금을 받아 귀국하여 1년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 귀국하기 싫은 사람은 저에게 신청하세요. 제가 아는 올리브 농장에 취직시켜 줄게요.” 가이드가 또 농담을 건넨다.

프리힐리아나라는 지명을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았다.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사방이 트여 전망이 좋다. 올망

졸망 모여 있는 집들은 모두 흰색이다. 백악의 전당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카사블랑카(Casablanca)다. ‘카사(Casa)’는 집이고, ‘블랑카(Blanca)’는 흰색이니까 이 동네는 그야말로 ‘언덕 위의 하얀 집’이다. 밀바나 마리사 산니아가 불렀던 칸초네 ‘카사비앙카(Casa Bianca)’는 같은 뜻의 이탈리아 말이다. 1960년대 유행했던 패티 김의 동명 대중가요가 생각난다. 간절한 호소력으로 젊은이들을 매료했던 노래였다. 골목골목이 나무와 화초로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은 동화 속 마을 같다.

모로코 북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도시 카사블랑카를 배경으로 하는 동명의 영화가 떠올랐다. 저 유명한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 그리고 폴 헨레이드 등이 주연한 멜로드라마 영화 말이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며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주인공 릭(험프리 보가트)의 가슴은 얼마나 쓰라렸을까? 감동적인 그 장면을 연상하면 내 가슴도 아리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도착하니 우리 일행 말고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북적거렸다. 우리는 저 깊숙한 곳의 식탁에 배정되었다. 답답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발코니 식탁에 앉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카사블랑카를 내려다보며 없는 맛도 부리고 여행자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다는데, 오늘은 하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베란다 식탁 위 차양 가장자리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점심으로 생선튀김 같은 요리를 먹었다. 배가 고팠던지 양이 많은 샐러드도 맛이 있었다.



일행 중 너구리가 있어서 가끔 동료들을 웃기는데 이번에도 그의 끼가 발동했다. 식당 여종업원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며 “당신은 너무 예뻐, 나 아직 미혼인데 우리 결혼할까?” 그 말을 받아 넉살 좋은 가이드가 통역했다.

“나는 미녀 축에 끼지 못해요. 나보다 더 예쁜 이 식당 따님을 소개할까요? 내 친구이기도 한데 마음씨도 좋아요.”

그러더니 그 종업원은 진짜로 한 처녀를 데리고 왔다. 미모가 출중했다. 얼굴은 가무잡잡한데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체격에 갈색이 도는 큼직한 눈과 오뎅한 코와 가름한 뺨, 그리고 침착한 태도가 나무랄 데 없는 미인이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살짝 미소까지 지었다.

“누가 저를 보자고 했나요?”

“내가 보자고 했어요.” 너구리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선생님은 기혼자 아니에요?”

“나도 미혼자요. 아가씨만 좋다면 돌아가지 않고 여기 그냥 눌러 살 수도 있어요.”(저런 거짓말쟁이)

“여기서 직업이 없잖아요.”

“나는 무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식당 청소도 할 수 있고,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하필 화장실 청소냐?)

“아니 그런 일 말고요. 돈 버는 직장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은 곤란한데.”

“저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하고 아가씨는 뒤돌아섰다. 한편의 막간극은 그렇게 끝났으나 황금 보화를 놓쳤다고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식사가 끝나고 곳은 날씨에도 동료들은 각자 시내 관광을 하겠다고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흩어졌다. 주룩주룩 비는 내리는데 나는 갈 데 없는 나그네가 되어 청승맞게 여수에 젖었다. 요절한 시인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을 흥얼거리고 ‘목마와 숙녀’를 읊조리는데, 갑자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나이팅게일에게’라는 시구가 생각났다.

—전략—

잘 가라! 잘 가라! 네 구슬픈 노래 사라진다.

가까운 목장을 지나 고요한 시냇물 위로

언덕 위로, 그리고 지금은 깊이 묻히었다.

다음 골짜기의 숲속에,

이게 환상인가, 아니면 백일몽인가?

사라졌네. 그 음악: 나는 깨었는가? 자는가?

—후략—

이런 때일수록 시간은 더디 간다. 동료들은 우산을 쓰고서도 기념촬영을 하기에 바쁘다. 사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나도 골목길 가게를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골목마다 아열대식물의 풍만한 잎들과 원색의 꽃들이 오만한 자태를 자랑한다. 개성 넘치게 꾸러진 가게들에 온갖 기념품들이 가득하고, 하얀 집들 또한 각각 독특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살만한 물건이 없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버스로 돌아왔다.



네르하 지중해

오후 1시 반쯤 되었을까? 버스는 유럽의 발코니라는 네르하로 향했다. 이 도시의 이름 또한 생소하다. 말라가 주에 속해있는데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가이드에 의하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마을이라고 한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다. 바로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그리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카사블랑카들이 그림 같다. 비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래도 지중해는 그 본래의 푸른빛을 완전히 감추지는 않았다. 해안에는 키가 훌쩍 큰 야자수며 바나나 나무며 용설란 등이 이국적 정취를 물씬 풍기는데, 파도는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간단없이 해안을 때린다. 멀리 상선 같기도 하고 군함 같기도 한 배들이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고 어디론가 유유히 항해하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과 예술을 출산하고 가꾸었던 지중해, 그러나 로마의 피어린 제국사로 점철된 지중해, 그 언저리에서 나는 인류의 스승들인 그리스와 로마의 철인이며 예술가며, 불세출의 정치가들을 추상했다. 지중해여! 차라리 거센 파도를 쳐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해전 때처럼 노도를 일으켜 천지를 진동시켜라. 나는 옷이 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안개 낀 지중해를 바라 보았다. 누군가 옆에서 내 측은한 모습을 보더니 이런 날이면 누군가 '태양은 가득히'에서 칸소네 가수 밀바가 불렀던 '푸른 파도여! 언제까지나'라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름없이 못 감회에 젖어있는데,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시가 생각났다. 민재식이라는 시인의 시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가 미국 유학 시절 어떤 서구 여인과 같이 공부했는데, 학업을 마치고 헤어질 때의 감상을 읊은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쓰면 이런 것이다. '수도의 시가지를 등지고/포토 맥 강가에 얼굴을 비치운다……/그 여자의 푸른 눈동자는 지중해를 꿈꾸는데/내 고향은 영산강 건너 쪽……/그녀는 구슬프게 구슬프게 울었다/나는 우는 대신 자명시계를 울렸다.' 내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

유명하다는 교회와 공원을 돌아봤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한 하얀 집들의 언덕을 배회했다. 모로코산 가죽제품이 싼 곳이라고 하여 어느 상점에 들러 가죽 지갑을 사려고 상품 몇 개를





안달루시아 에센스\_ 미하스

집어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 빗물을 묻히면 상품이 손상된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파는 제품은 모로코에서 천연 염색술로 염색하기 때문에 냄새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페단이 있다가에 살까 말까 주저했는데, 종업원의 불친절이 나의 구매 의욕을 여지없이 꺾어버렸다. 가이드는 그런 지갑 사서 선물하면, 친구라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라면 애정이 식고, 원수라면 살인난다고 과장한다.

미하스(Mijas)는 300km에 이르는 '태양의 해안'(Costa del Sol)이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속한다. 일 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여서 유럽인들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름난 휴양지 중 하나이다. 평균 해발고도 428m에 위치한 이 도시는 흰 벽과 붉은색

(혹은 갈색) 기와지붕이 특징인 전통양식의 주택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어 카사블랑카 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에센스'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집집마다 베란다에는 샬비어며 제리눔이며 칼란코에 화분에 꽃이 만발하여 마을의 운치를 돋우고 있다. 미하스 관광센터 부근의 당나귀 동상 표지석에는 미하스가 '당나귀 택시의 시조'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마에 번호판을 달고, 얼굴과 안장에는 형형색색의 장식을 하고 있는 당나귀 택시들이 광장에 늘어서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광객이 타면 온 시내를 데리고 돌아닌다. 이 작은 시의 또 하나의 명물은 성당 전체를 돌로 쌓아 동굴 또는 암자처럼 보이는 예배당이다. 미하스 수호 성녀인 페냐 성녀가 모셔져 있는 비르헨 데 라 페냐 성모 예배당이다. 뒷산 마을에도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올라가 보지 못했다.

호상 116호에 계속 연재

## 사 진 출 처

- 헤네랄리페궁의 아세끼아 정원 분수, 나스르 궁, 알카사바 요새, 사자의 중정, 사자 분수, 그라나다, 올리브 농장, 안달루시아 에센스\_미하스 스페인관광청
- 프리힐리아나 카사브랑카, 네르하 지중해 허창무 교우 제공
- 안달루시아 에센스\_미하스의 야경 미하스빌라스닷컴

안달루시아 에센스\_ 미하스의 야경



## 그리움

김 진 하  
상66·시인

명한 얼굴로  
빛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얇은 그늘이 덮히고 있었는데

빛속으로 사라진 그녀는  
밤의 어둠과 함께 묻혀버리고

나는 내 마음의 떨림을  
감추려고 이를 딱 다문다

산속 정자에 앉아  
몽롱한 그리움 속을 헤매는데

비는 그치고  
흐르는 달빛으로 세상은 젖어간다

먼데서 뽀짝뽀짝  
뽀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 배움에는 끝이 없다.

유 상 옥

상55·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사람들은 필자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때마다 필자는 “나 자신을 위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면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아제약 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실력이 있어야 회사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스스로의 발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업무가 끝난 뒤에도 회사에서 공부하며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그 결과 단 한 번 만에 국가고시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혔더니 합격이라는 결과가 따랐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최고홍보책임자(CCO)로서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특설강좌를 들으며 고미술 연수를 같이한 학우들과 박연회(박물관연구회)라는 소모임을 꾸려 지금까지 수업을 함께 듣고 있다. 37년을 함께 공부했으니 학우들도 나이가 들었고 필자 역시 나이가 들었다. 사회에서 배움은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삶의 신념이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석·박사학위를 따는 것은 각자 노력의 결과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직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남보다 더 알아야 하고 앞서 실천해야 한다. 열의가 있으면 성과는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상시 사원들에게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를 강조한다. 교육장 한편에 이 글귀를 붙여두고 사원들이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훌륭한 인재가 되길 독려한다. 배움이 빠르면 어떤 일에도 열중하고 능력이 출중해져 쉽게 간부로 발탁된다.

우리 회사에서도 배움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매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학이시습지 포럼’이라는 특강을 듣도록 한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이뤄지는 이 교육은 코리아나인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고객 관리, 경영 마인드 같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주제도 다뤄 사원들에게 인기가 좋다. 2007년 시작해 이달에 130회차가 됐다.

앞으로도 필자는 밭을 가는 것처럼 묵묵히 배우고 때로 익히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받은 교육, 취득한 학위, 현재 참여하는 모든 모임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한복판일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2018년 9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발췌



## 55 회장 이득주

###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

오미크론(Omicron)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머지않아 끝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Ukraine) 침공 등으로 세계 질서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니 큰 잘못 없이 당하는 약소민족의 큰 비애를 느끼고 있으며, 냉엄한 국제정세는 선의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정신적, 신체적 타격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석유, 식품류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매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전쟁 당사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들까지도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 경제생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 여러분의 안위가 더욱 염려됩니다. 그간 소식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득주 회장

- 별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영우(2022.3), 박은양(2022.4.12, 경영대 교우회 이사), 송수규(2022.5.1), 유영호(2022.6.15)
- 병원 치료 후 가료 중(쾌유를 빕니다)  
김영식(?), 박기환(?), 남종현(건강 문제), 박태식(건강 문제), 이지원(건강 문제)
- 소통 관련  
이지원(2022.1, 부인과 통화), 김영식(2022.2.21), 박천배(2022.3.23), 김광희(2022.3.26), 조대행(2022.3.29), 박승빈(2022.4.16)
- 협찬 소식  
충북 보은에 거주하시는 사업가 박상호 회원이 금 삼십만 원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 55학번 협찬 은행 계좌 : 중소기업은행 569-035621-01-013(55학번 전용) 이득주

회원님들의 소재나 변동사항을 본인 또는 주변에서 밝혀주지 않을 경우 생사 여부 및 소재가 완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친교가 있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2022년 초여름을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회원님들 건강 백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56 회장 이연상 / 총무 변동수

### 그동안의 56학번 소식 ●●●

2021년 7월에 발행된 호상 112호에 소식을 전한 후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월 모이던 56학번 월례회인 막수회 모임을 중단했다가 코로나의 위험성은 계속 내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백신 접종을 2차 이상 맞았고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되고 있으니 모임을 재개하자는 일부 동기들의 요청이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12월에는 2020년 12월에 개최했어야 할 경영 56학번 정기총회를 2021년 12월에는 2년 만에 개최하려 했으나 수백 수천 대에서 오르내리던 확진자가 갑자기 만 명대로 증가되어 부득이 총회를 갖지 못했고 또 확진자 수가 만 명대에서 20만, 30만 명대로 대폭 증가하여 2022년 3월까지 막수회 모임을 갖지 못했다.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을 완전 해제함에 따라 4월과 5월에는 정상적으로 막수회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5월에는 근래 드물게 10명의 교우가 참여하여 점차적으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6월 모임 이후 2022년 5월까지 2년 동안에 네 차례밖에 막수회 모임을 갖지 못했으나 매회 개최할 때마다 참석 회원들이 분담하는 회비를 박종혁, 오태환, 이준순, 최종해 동기가 그달의 모임 비용을 각각 전담해주는 찬조를 해주어 기금이 매일 늘어나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동기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년기의 형편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찬조해준 위 네 동기들에게 우리 경영56 동기들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막수회 월례 모임을 예전같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하고 12월에는 3년 만에 경영56 정기 총회도 개최할 계획이니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했던 동기들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지난 4월에는 홍순옥 동기가 유명을 달리하여 비보를 전한 바 있었으나 문상을 못했던 동기들도 홍 동기의 명복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빌어주었으리라 믿는다.

다음 달 막수회 모임도 마지막 수요일 12시 30분에 약수동 춘천 막국수 집에서 갖게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며 경영56 동기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우간의 우의 증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막수회

##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 2022년 상반기 전체모임 개최 ●●●

계절의 여왕 5월의 화창한 봄날인 5월 27일(금) 오후 1시, 7호선 논현역 앞 '취영루'에서 정시균 동기회장이 전체 동기들을 초대 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이날 모임에는 63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여 동기들이 역대 최다인 8명이 참석하였다. 정시균 회장은 코로나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인사말에 이어 지난 3년간에 있었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보고사항#

첫째, 코로나 사태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12월로 임기가 종료함에도 후임회장을 선출할 수 없어 전임 회장들과 임원들과의 협의 및 모임회동에서 회장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화 되는대로 총회를 열어 후임 회장을 선임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입학 60주년 및 팔순 축하 해외여행'이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게 되자 국내여행으로 변경하여 진행된 '국내명승지 순례'는 당초 희망자 74명에서 37명으로 참가자가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춰 2021년 11/16부터 11/19까지 3박 4일간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 전주에서부터 첫날 일정을 시작하여 한옥마을, 경기전과 진안 마이산 탐사를 돌아보고 여수에서 하룻밤 여정을 풀었다.
- 둘째 날은 여수바다 드라이브와 통영바다와 섬들을 케이블카로 관람 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
- 셋째 날은 오륙도 앞바다와 스카이웨이를 걷고 나서 태종대 유람선 투어, 울산 온산공단의 전규수 회장의 세진메탈 공장 방문한 후, 태화강 국가공원을 돌아보고, 울진의 국내최고 온천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 넷째 날은 삼척 해신당 공원 관람, 강릉의 유명카페 방문, 인제 용대리에서 입학 60주년과 팔순 축하 케익 커팅식을 갖고 '국내명승지 순례일정'의 마무리를 한 후 귀경하였다.



61학번 여 동기들



사목회 안산자락길 걷기

- ★ 물품, 식사를 찬조해 준 박수죽 부부, 오영희, 전규수, 조 경 동기와 최민자 감사  
현금을 찬조해 준 김길남, 김윤장, 엄무성 동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맙습니다)

셋째, 그간 동기회장을 남 동기들이 60년간 담당하여왔는데 차기 회장은 여 동기가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여 동기들 모임에서 후임을 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정사균 회장의 초청으로 6월 14일 오후 1시 9호선 삼성중앙역 앞 '해초록'에서 여 동기들만의 오찬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선임을 결정하기로 했다.

## 소모임 소식 ●●●

- 골프모임인 호비회는 야외 행사인 관계로 매월 마지막 주에 만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도암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여의도에서 만나 오찬회동을 이어오고 있다.
- 걷기모임인 사목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만나 서울근교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6월부터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셋째 목요일로 앞당기고 명칭도 삼목회로 바꾸기로 하였다.
- 다른 모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는 하반기에나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62 회장 윤갑중 / 총무 한상욱

### 오랜만의 62학번 동기모임 ●●●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 장소 : 청계산 옛골 청계산장

경영학과 62학번 동기들은 코로나로 2년여간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어 윤갑중 62회장이 동기들의 모임을 주선해서 동기들의 부인들을 포함하여 44명이 금년 첫 모임을 가졌다.

일부 동기들과 부인들은 10시 30분에 옛골에 모여 간단한 주류를 준비하여 약수터까지 산책하였으며 다른 동기들은 12시 30분에 청계산장에 모였다.

석탑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지 60년이 지나 이제 동기들이 거의 팔순이 되어 팔순 축하 케익을 준비하여 서로를 축하하였고 금년 가을에는 입학 60주년 및 회원 팔순 축하 국내여행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점심은 한우등심과 음료, 주류를 먹으면서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앞으로 모임을 자주 갖기로 하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18일(수) 요산회 등산모임을 실시하였다. 요산회 회원들이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서 만나 대공원을 산책하면서 잠시 휴식시간에 간식을 즐기고 하산하여 사당동 '사랑채'식당에서 동기 13명이 만나 즐거운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62학번 입학 60주년 기념 및 팔순 축하모임





## 64 회장 김윤호 / 사무총장 민선용

### 백수회 4월 등산모임 ●●●

- 일 시 : 2022년 4월 23일(토)
- 장 소 : 청와대 뒷길 북악산
- 참가자 : 백수회장 지동직, 대대장 이경희, 김건수,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이윤규, 최종욱

54년 만에 개방되었다는 청와대 뒷길을 삼청공원 입구에서 입산표찰을 목에 걸고 모처럼 지동직 백수회장이 예약한 산행을 우리 아홉 명의 동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법흥사 터에 흐트러진 연화문 초석과 부도(浮屠)는 신라 진평왕 때 나옹 스님이 창건한 법흥사 혹은 문헌에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연꽃사 동쪽인 삼청터널 근처에서 호랑이 사냥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꽃사 터라고도 추정되는 곳으로 목만 잘려 떨어진 용머리가 덩그러니 놓여 허전해 보이는 곳을 지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길과 완만한 데크길 중 지름길을 택해 가는 급경사는 제법 숨이 찼어도 끝까지 올라 산등성이에 쌓아놓은 성을 넘어 북쪽 성벽아래 침터에서 막걸리 한잔하려던 계획은 완전 실패, 완장 찬 감시원들이 퍼질러 놓은 막걸리 병을 보고 "이곳은 술 마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갔으리라 생각하여 "적당히 마시자!"고 말했더니 가지도 않고 뒤편에 서서 듣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무안을 준다. 할 수 없이 평 대신 닭이라고 커피 한 잔씩하고 성벽을 기대고 앉아서 멀리 바라보이는 북쪽 바위산들의 아름다운 자태는 바라보는 방향이 새로워서 더욱 장관으로 보였고 성벽 따라 내려오는 길에 몇 백 년 자란 소나무 군락은 가지가 구부러져 천개(canopy)를 이루게 가꿔놓은 듯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깊은 산허리에 지어진 숙정문(肅靖門)은 그 내력이 재미가 있는데 음양오행상 수(水)·지(智)를 상징하는 북대문으로 1396년(태조5년) 9월 도성의 나머지 삼대문과 사소문(四小門)이 준공될 때 세워져 풍수지리설에 북문을 열어 놓으면 음기(淫氣)가 침범하여 부녀자들이 풍기가 문란해진다고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험준한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1413년 폐쇄, 대신 서북쪽 창의문 인근 홍지문을 내어 실질적 북대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 숙정문에서 다시 나타난 완장 찬 감시원이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수고는 또 술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란다. 산자락을 거의 내려와 새참으로 막걸리, 과일, 과자를 들면서 아귀가 아프도록 얼마나 떠벌리기를 했었나! 성북동 자칭 40년 된 설렁탕집은 그 역사와 맛에 상관없이 탁주를 곁들여 늦은 점심으로 꼬르륵 거리는 허기를 채워 주었고, 오늘도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 산행으로 미루고 화창한 봄나들이를 마무리했다.



백수회 북악산 성벽 아래에서

### 백수회 5월 등산모임 ●●●

- 일 시 : 2022년 5월 14일(토)
- 장 소 : 서대문구 독립문역 부근의 안산자락길
- 참가자 : 백수회장 지동직,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송병열, 안덕수, 유명식, 이윤규

5월 중순 안산 아카시아 꽃은 만발했지만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 온 산을 흰 눈 덮히 듯 했지만 그 좋은 마음 설레게 하는 향기는 어디 갔는지 보기보다는 한 움큼 꽃을 움켜잡고 코에 대보지만 부족하기만한 내음, 오랜만에 참가한 현대그룹 회장단이었고 색소폰 연주의 달인 송병열 회장은 점심을 한턱냈고 지난주에는 군수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강화도 대변인 안덕수 의원이 멋지게 점심을 사서 합류 시 동기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 같다. 연초록 메타세쿼이아 잎 우거진 데크길은 황매화와 노란 애기똥풀 꽃이 길 옆을 물들이고, 한동안 건강이 불안했던 지동직 회장의 지휘가 다시 본 궤도에 올랐으며, 만형이자 프랜차이즈 도입 선구자인 김현희 동기는 노익장 과시로 6년의 갭(gap)을 무색케 했으며, 영상편집의 제작, 감독과 썰의 대가인 박명익 동기는 곧 영화라도 제작할 작정이고, 지식의 보고이며 각종 카톡을 완전 점령하고 호령하는 건설업계의 인물 유명식 동기는 동기회 모든 소모임 회장을 모두 섭렵하고, 고스톱 회장



백수회 안산자락길에서

까지 역임한 이용규 회장 역시 회장을 다시 재임해야 할 예정이고, 여군훈련소 정보·작전·정훈과에서 어설픈 카메라맨이었다는 박채길 등이 만나서부터 누에고치실 풀어내듯 끊임없이 뽑아내는 쉼의 타래는 전철을 내리고부터 시작하여 다시 탈 때까지 그칠 줄 모르고 연속되는 둘레길의 하루 동안 만찬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묶여 지내던 사람들이 모처럼 해방된 첫 주말이어서 안산 둘레길은 줄줄이 이어지는 인파속에서 동료들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장터처럼 붐비는 길이 되었으며 백수들은 백세까지 건강하게 모여지내자고 매주 수요일, 나중엔 토요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영원한 모임이 지속되기를 빈다.

## 64학번 입학 동기 모임(경영학과 64학번 동기회 주관) ●●●

대공원에서 '얼굴 좀 봅시다.'모임 주관대학이 된 경영대학 64학번은 64년 입학 동기 모임을 2020년 1월부터 말아 경영대 회장이 동기회 회장으로 겸임하는데 코로나 전염병 시작 때인 2020년 1월 모임을 한 번 개최한 뒤 집합금지과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2년을 휴회하고 금년 5월 10일 대공원역에서 동기 30명(대공원 26명, 식당 4명 합류) 참석한 교우 중 경영대에서 12명이 참석하였다. 김윤호 동기회장, 유명식 동기회 부회장, 권영기 사무총장, 감사 이석훈 등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와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동기들 모임 장소 안내와 명찰 교부 및 참석자 등록 등으로 바쁜 임원들을 도왔고 고병선, 박명익, 박채길, 안덕수, 유성준, 이경희, 이용규, 최종욱도 거들었다. 둘레길을 오르다가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저수지 아래 쉼터 팔각정에 모여 김윤호 회장, 전임 송대용 회장, 부회장 조봉금, 처음 참석한 안덕수 의원 등의 건배 제의로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내려오면서 등산회 만년 충무 고병선 동기가 커다란 비닐 주머니에 길바닥과 길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을 본 도로 가득매운 행락객들이 우리의 경영명찰을 보고 "일행이 모두 경영대학이나?" "어느 대학 경영대냐?" 문기에 고대 입학 동기들이라고 소개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역시 다르구나!"하고 쓰레기 줍는 고병선 등산 대장 때문에 전체 대학 명예가 올라가는 경우를 체험하였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입학동기들의 대화는 사당역 대형 정육식당에서 기다리는 네 명의 동기생 중 원예과 최계화 동기가 100만원 거금을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찬조하는 미담과 함께 늦은 점심을 포식하면서 이제 집합금지가 해제되었으니 전보다 더 자주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얼굴 좀 봅시다.'행사에 참여 하자고 다짐하면서 꽃들이 피어서 봄이 왔다는 호시절 하루를 보냈다.



64학번 입학 동기 모임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룡 / 제2총무 이영식

## 69석영회 정기총회 개최 ●●●

69석영회는 2022년도 총회를 27명의 동기들이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부 행사로는 원로 김용언 문화재 해설사 동기의 몰랐던 역사 비화 해설에 놀라면서 1시간 반 동안 흥미진진하게 관람하였고 2부 행사로는 교대역 근린 '토담'한정식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총회 행사를 진행했다. 결산보고 및 승인절차가 있었고 차기 회장은 현임 이재선 회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모임에 도움을 준 6명의 동기를 표창하였다. 이재선 회장은 연내 2차 대면행사를 치를 것을 약속하였고 타올과 기념품을 거의 모든 동기들에게 지급하였다.



69학번 정기총회



## 우리의 산행은 계속된다 ●●●

산악회 고정 멤버 중 몇 사람이 COVID19 확진자로 판명되어 월 2회 월례 산행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3월 5일은 대공원 둘레길과 특히 5월 21일에는 비교적 난코스인 삼성산 칼바위 산행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거의 매주 개별 산행은 계속되었다.



삼성산 칼바위에서

## 정종하 동기의 합창경연대회 참가 ●●●

정종하 동기는 4월 중 전국골든에이지(어르신)합창경연대회에 팀원으로 참가한바 소속 팀인 로사리오팀은 전국 120여 팀 참가 중 17개 팀의 결선 진출 팀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7월 20일의 최종 결선을 대비하여 맹렬히 연습 중이며 3등 이내 입상을 예상하고 있다.

(단체사진 중 후열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정종하 동기)



로사리오팀과 결선진출통보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총회 관련 ●●●

동기 구자삼 교수는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총회에서 '다가오는 변화와 CEO의 역할'제목으로 경기도 전역의 시 지부 대표 사업자들에게 특강을 하여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CEO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재선 동기회장은 당일 동 협회 도지회장에 연임하여 취임하였다.



구자삼 동기의 특강

## 스승의 날 사은 행사 ●●●

5월 16일 목이균, 조현룡, 김은영, 김두봉 동기들(65학번 박태인 선배님, 66학번 김영환 선배님 배석)은 69석영회를 대표하여 지 청 은사님을 모시고 '벽제갈비 더청담'에서 사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 청 은사님은 69석영회 명예회원으로 모신다는 제안을 받아 주셨고 이어 은사님은 2022년도 69석영회 연회비도 납부하신 바 있다.



지 청 69명예회원님을 모시고

## 작가 이창식 동기의 번역소설 넷플릭스 영화 인기 ●●●

'하찌의 육아일기'저자로 유명한 작가 이창식 동기가 번역한 소설 레드 드래곤과 한니발 영화가 넷플릭스에 차례로 등장하고 있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동기들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창식 동기



## 70 회장 한부연 / 총무 정균화

### 월례 골프모임 (골프회장 : 조남화) ●●●

● 일 시 : 2022년 5월 25일(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프 모임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진양밸리CC에서 갖고 있다. 5월 모임에는 인원부족을 긍휼하게 여긴 사모 2분이 합류하여 네 팀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날씨도 더할 나위 없이 받쳐주어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골프 수요 폭증으로 단체 팀 연 부킹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찬종 전임회장이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네 팀을 배정받아 동기들과 운동하면서 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월례 골프모임

## 73 회장 현기춘 / 총무 유장근

### 유장근 동기, 4차 성지순례길 도전길 떠나 ●●●

유장근 동기가 부인(이윤순)과 함께 생애 네 번째 성지순례길을 걷기 위해 비아 프란치제나(Via Francigena) 순례를 5월 13일부터 시작했다. 영국 Canterbury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경유하고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 Vatican City까지 장장 2,000km의 순례길을 90일간 걷는 대도전이다. 유장근 동기 부부는 이미 세 차례 성지 순례길을 다녀온 바 있다. 1차는 산티아고 프랑스 순례길(2011년, 800km, 33일 소요), 2차는 산티아고 북쪽길(2016년, 1,000km, 37일 소요) 그리고 3차는 산티아고 은의 길(2019년, 1,200km, 52일 소요)이다. 이번 네 번째 순례를 마치면 총 5,000km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부부가 함께 걷고 오는 것이다. 순례길 도전은 유 동기가 직장생활에서 은퇴하고 카톨릭 세례를 받았을 때 부인이 산티아고 순례를 가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도전을 위해 부부가 각자 10kg의 배낭을 메고 20km 이상의 한강변 거리를 걷는 연습부터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했다. 무사히 1차 순례를 마치고 부부는 '산티아고의 소울메이트'라는 책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순례를 마치고 와도 유 동기 부부는 또 다른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진: 유장근 동기 부부의 순례길 걷기 17일차, 프랑스 Reims 근처)



유장근 동기 부부

## 74 경영회장 조균환 / 사무총장 구지형

### 도봉산 산행 ●●●

● 일 시 : 2022년 4월 1일(금)

금요일 평일인데 가끔씩 얼굴 보는 동기들 중 한 동기가 '우리 가볍게 등산이나 하자'라는 제안에 함께 의견이 모아져 거의 한 달 전쯤 함께



약속을 잡고 6명 동기들은 경전철 우이역 2번 출구에서 9시 30분에 만나 상춘을 즐기기 위하여 둘레길을 걸었다. 한 동기의 수고로 우리들은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다. 마침 동기회장과 제2수석도 참가하여 자연스럽게 코로나하의 동기회 계획도 함께 나누고 다른 동기들의 의견도 자연스레 나눌 수 있었다. 연산군 묘를 지나면서 잠깐 묘에 올라가 그 옛날의 역사를 기억해 볼 시간도 가졌다. 이윽고 무수골로 접어들고 조금 더 가니 도봉산쪽 둘레길이 나왔다. 그저 편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걸어갔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어 단골 식당에 들러 보쌈, 도토리묵과 막걸리 두 병을 시켜놓고 함께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 6월에는 또 다른 코스로 함께 편한 등산을 하기로 했고 동기들 중 반은 당구를 치러가고 나머지 반은 전철로 향하였다.



도봉산 산행 후

## 4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2년 4월 2일(토)

매월 첫째 토요일에는 우리 경영74 남산모임에서 꾸준히 남산을 올라간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무로 대한극장 앞에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남산골을 지나 남산의 둘레길로 편하게 걸었다. 곳곳에 노오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가 봄이 벌써 온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침 날씨는 조금은 쌀쌀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화사한지 모른다.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제 한껏 봄의 향기를 느끼며 걸었다. 거의 두 시간 반쯤 걷고는 우리가 항상 가던 냉면집에 올라가니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막걸리와 소주와 빈대떡을 주문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호석 회장이 제육도 시켰다. 한 회장의 건배로 막걸리와 소주를 한 잔씩 들고 기분 좋은 하루를 즐겼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식사를 시키고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거의 끝날 무렵에 구자형 총무가 기본회비 한 장씩 걸어 회장에게 주어 계산하게 하고는 박수로 오늘 모임을 파하고 다음 달 모임을 기약하며 몇몇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나머지 몇몇 동기들은 전철로 향하였다.



남산에서

## 망우산 트레킹 ●●●

● 일 시 : 2022년 4월 30일(토)

9시 30분에 양원역 광장에서 경영74 동기들 30여명이 반갑게 만나 오래간만에 춘계 등산 모임을 가졌다. 조곤한 동기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에 이어 구자형 사무총장이 준비한 떡과 기념품을 동기들과 함께 나누는 후, 서울 둘레길을 따라 주변 아름다운 봄의 색깔을 느끼며 천천히 망우산을 향하였다. 마침 망우산에 기념전시관도 만들어져 있고 산도 새롭게 정리되어 있어 너무 아름다웠다. 망우산을 지나 아차산을 앞에 두고 사가정역으로 내려와 4명이 한조로 각각 식사를 한 후, 함께 당구를 즐기거나 몇몇 동기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간 못 다한 이야기꽃을 함께 피웠다. 6월 17일~18일(박 2일)에는 문경에 있는 동기가 경영하는 체리농장으로 문경 체리나들이를 함께 즐기기로 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오랜만에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회장단에서는 동기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망우산 트레킹

## 은사님 모시기 ●●●

● 일 시 : 2022년 5월 15일(일)

스승의 날에 우리 동기인 강호갑 회장이 동기들 몇몇과 평소 동기들이 존경하는 은사중의 한 분이신 지 청 교수님을 모시고 강남의 모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다. 거의 많은 시간을 지 교수님의 다정한 강의 아닌 말씀에 우리들은 오래간만에 귀를 쫓긋하였다. 또한 동기들과의 우정 어린 대화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다시 한 번 은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 지리산 나들이 ●●●

● 일 시 : 2022년 5월 17일(화) ~ 18일(수)

자주 만나는 다섯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 차를 타고 우리 동기가 살고 있는 지리산 산동마을로 향하였다. 익산근처에서 맛있는 전통주에 점심을 먹고 산동면에 가기 전에 용굴산 하늘길을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는 계속 섬진강이 굽이굽이 보이는 아름다운 산이 보였다. 험한 산이었지만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계단과 길을 따라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 마지막 코스로 비호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올라가는데 꽤 애를 먹었다. 섬진강의 긴 줄기를 조망하면서 땀을 식히고 내려와 마지막 목적지인 산동면을 향해 천천히 가다보니 동기의 집에 다다랐다. 동기가 알려준 슈퍼마켓에 가서 맛있는 제주 흑돼지고기에 야채, 딸기, 참외 그리고 라면종류 등 잔뜩 장을 봤다. 이튿날에는 전라남도 구례 사성암에 올라갔다. 특별히 소원바위가 있어서 나의 소원인 지역단체장으로 절치부심하여 출마하신 선배님이 꼭 당선되시길 기원했다. 각별히 정성을 다하여 소원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다 했다. 사성암에서 내려와 구례에 위치한 자연드림 본사에 가서 건강식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고 마침 그날이 3.8일 구례장날이라 시골 장날구경을 오래간만에 갔다. 현대식 대장간을 구경하고 나물, 화초 등 식물구경도 하고 장날에 희귀한 인도 짜이차도 마시고 어린이처럼 도넛과 파배기도 사먹고 생선가게에서 갑오징어와 서더리를 휩쓸고는 인근 구례터미널 근처로 가서 화요 몇 잔에 싱싱한 회를 안주삼아 들고 당구 한 게임 후 우리들은 다시 서울로 향하였다.



지리산에서

## 문경 나들이 ●●●

●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 18일(토)

오랜만에 경영74 동기들은 1박 2일로 문경나들이를 했다. 서울에서 군 지역 근처와 양재역 근처에서 만나 함께 출발하고 멀리 문경에서 동기들이 보고 싶어 참석한 동기는 혼자 출발했고 양평에서도 두 동기가 개인적으로 출발했으며 오전 열시 조금 넘어 집결지인 문경자연생태박물관에 도착하였다. 박물관은 문경새재 일원의 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물관 옆으로 조각공원, 야생화 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 1층에는 영상관, 신재생 에너지관, 4D가상 생태체험관이 있었고 2층에는 생명의 기원, 문경의 자연 환경, 문경의 생명, 자연과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문경생태 미로공원을 방문하여 미로 속에서 헤매기도 했으며 도자기 미로, 연인의 미로, 돌 미로, 생태 미로를 주마간산 식으로 체험하고 맛있는 자연 밥상 집에서 점심을 들고 오후에는 문경새재에 올라갔다. 물론 본인들의 체력에 따라 몇몇 동기들은 3관문까지 편도 약 7km를 걸었으며 대부분의 동기들은 제2관문 근처까지 걸으면서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을 여유 있게 만끽했다. 문경새재는 날아가는 새들도 쉬어가는 고개로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은 대자연과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예로부터 영남과 한양을 잇는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갯길로 백두대간의 주흘산과 조령산 일대의 원시림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청정 휴식공간이며 특히 1관문에서 3관문까지 문경새재 휴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제1관문은 주흘관이라 하고 제2관문은 조곡, 제3관문은 조령관이라고 한다. 둘째 날에는 예약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천년고찰 김룡사를 향하였다. 역시 고찰답게 많은 스님들이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찰이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우리들은 예천 회룡포로 향하였다. 가뭄이 들어 회룡포를 보는 느낌이 조금은 반감되었지만 역시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장가가 들어 진남휴게소에서 고등어구이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마지막 일정인 동기가 농사짓는 체리농원으로 향했다. 체리 과수원에 들어가 체리를 따먹고 준비한 막걸리를 함께 들며 우리의 우정을 한껏 맛보았다. 아쉽지만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문경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74동기가 운영하는 문경 체리농장에서





## 78 회장 홍 승

### 번개 모임 (리치런치) ●●●

●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6:30

코로나 사태가 점차 진정됨에 됨에 따라 작년 11월 3일(수) 모임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동기 모임을 가졌다.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 승 회장이 번개 모임을 소집하여 종로구 낙원동 소재 리치런치에

서 8명(홍 승, 강석현, 계창민, 김 열, 권오상, 신학기, 이정열, 정세종)이 모여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리치런치 사장의 종류별로 다양하고 맛있는 오마카세 요리와 함께 오랜만에 동기들과 만취한 저녁이었다.

홍 승 회장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와인 등 각 나라별 와인을 총 5병 준비하였는데 그중 3병은 용량이 1.5리터라서 8명이 포도주를 거의 1병씩 마신 셈이 된다. 이렇게 무려 5병(그중 1.5리터는 3병)이나 되는 무거운 술을 홍 승 회장이 직접 들고 왔는데 그 정성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날 충주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김 열 동기가 특별히 주중 모임인 번개모임에 참석하여 1,000여 평 땅에 농사짓고 강아지 키우는 농장의 일상생활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고 하니 78동기들이 시간 날 때 많이 구독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앞으로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동기들에게는 유튜브 내용이 사전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유튜브 주소는 '만정'이 또는 '여리네 농장'으로 검색하면 됨) 저녁 비용은 이정열 동기가 찬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3만원씩 회비를 모아 동기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다음달 7월 7일(목)에는 경영78 공식 모임을 개최하여 변함없는 우정을 돈독히 하고 78학번 동기회장으로 5년간 수고한 홍 승 회장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다.



경영78 번개모임(왼쪽)과 홍 승 회장이 갖고 온 와인(오른쪽)

### 등산모임(서울대공원 둘레길) (회장: 최동원) ●●●

● 일 시 : 2022년 5월 15일(일) 오전 10:00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약 2년간 중단되었던 경영78 정기산행을 5월 15일(일) 실시하였다. 장소는 과천에 거주하는 정세종 동기가 이날 산행 리더로서 본인이 잘 알고 좀 쉬운 코스인 청계산 서울대공원 둘레길로 결정하고 오전 10시에 과천역 2번 출구에서 만나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날 일부 동기들은 건강문제와 선약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오붓하게 7명(김일룡, 박수영, 석락희, 신학기, 정세종, 최동원, 홍준표)만 산행을 하게 되었다. 이날 2018년부터 4년간 봉사해 준 마음이 거인인 최동원 등산회장이 이임하고 작은 거인 정세종 동기를 만장일치로 후임 등산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정세종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당수 동기들이 과거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껴서 앞으로는 보다 편하고 즐겁고 안전한 명랑 등산을 할 예정이니 많은 동기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동기들은 단체 카톡 메시지로 그동안 수고한 최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존의 마마 타이틀에 추가로 회장 타이틀까지 가지게 된 정 회장에게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등산을 하고 나서 대공원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고향집에서 막걸리와 소맥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오랜만에 참석한 석락희 동기가 '경영78, 서울대공원 둘레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산행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올렸다. 그 자리에 있던 동기들 모두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석락희 동기의 재능에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헤어지기 섭섭한 마음에 고향집 바로 옆집으로 옮겨 각자 소맥 한 잔씩 더하고 나서 다음 산행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대공원 둘레길

## 등산모임(청와대 북악산) (회장: 정세종) ●●●

● 일 시 : 2022년 6월 11일(토) 오전 10:00

지난 5월 15일(일) 경영78 서울대공원 둘레길 등산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세종 회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주관하는 청와대 북악산 등산모임이 6월 11일(토)에 있었다. 산행코스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모여 북촌마을-삼청공원-청운대-만세동방-청와대 전망대-춘추관 입구-익선동으로 정하였다. 이날 회장 겸 산행 리더인 정세종 동기는 바쁜 와중에도 산행코스를 사전에 답사하고 걷기가 불편한 동기들을 위하여 등산화나 스틱이 없어도 걷기 쉬운 평이한 코스로 정하였다. 정세종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열정과 정성에 감동하여 처음에는 무려 17명이 동참한다고 하였으나 갑작스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11명(강석현, 김병수, 박원현, 박수영, 박재호, 신학기, 안승배, 안진철, 이흥영, 정세종, 최동원)이 이날 모임에 참석하였다. 오랫동안 폐쇄되었다가 최근에 개방된 등산로라서 그런지 너무나 등산객들이 많아서 반대편 등산객을 기다렸다가 등산로를 지나가야 될 정도로 매우 혼잡하였다.

트레킹 후에는 부인이 복통으로 참석하지 못한 최동원 동기를 제외하고 10명이 오마카세 맛집으로 유명한 낙원동 리치런치로 가서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 소주를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면서 뒤풀이를 하였다. 등산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재호, 이흥영 동기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고 이날의 옥의 티는 결혼식 참석 끝나고 뒤풀이에 참석하기로 한 박병규 동기에게 연락하는 걸 깜빡하여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뒤풀이 자리에서 정세종 회장은 경영78 등산은 2HS(Health, Happiness, Safety) 트레킹이라고 하면서 Happy하고 Healthy하면서 Safe한 트레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7월 등산 모임 장소는 관악산 무너미 계곡으로 정하였고 다음 산행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 당구 모임(사수회) (회장 : 이윤찬)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2일(수) 오후 2시, 서초역 대성 당구장
- 참석자 : 계창민, 김 열, 이은우, 유재권, 이윤찬, 한덕철
-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 2시, 서초역 대성 당구장
- 참석자 : 계창민, 김 열, 이윤찬, 추일성, 한덕철
-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교대역 롤링스톤 당구장
- 참석자 : 김 열, 김동원, 이윤찬, 이은우, 추일성, 한덕철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역 킹 당구장
- 참석자 : 김 열, 손서신, 이윤찬, 추일성



사수회 당구모임

## 80 회장 정창식 / 총무 하행민

### 지역 동기회 활동 ●●●

#### ① 수삼회(5월 18일 모임)

강남지역에서 활동, 거주하는 동기들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점심을 같이하며 동기들 소식, 건강, 재테크, 취미활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며 이날 모임에는 김범중, 김형섭, 하만우, 김준경, 이현우 동기가 참석하였다.



### ② 고양시 동기회(6월 2일 모임)

고양시 동기회 2022년 첫모임을 마두역 부근 치킨집에서 가졌다. 사람 사는 세상, 동기들 있는 세상... 코로나로 3년 만에 동네에 사는 대학동기들이 모였다.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는 나이는 지났다. 친했네, 안 친했네 하는 나이도 지났다. 조용히 말 수가 적은 동기도 있고 항상 화제가 많은 동기도 있다. 소원했던 동기들의 몰랐던 모습도 다시 알아가는 기쁨도 있다. 소식이 끊긴 동기들의 근황도 서로 물어보고 살아온 얘기들 전하는데 세 시간도 부족했다. 조용히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사라진 동기도 있었다.

### ③ 서울북부 동기회(예정)

- 일시 : 6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역전할머니매주 고대점

모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북부동기회를 가질 것이다. 해당지역이 아니라도 그 날 시간되는 경영80 동기들이 참석한다면 더더욱 즐거울 것이다. 하반기에는 마포지역 동기회와 분당지역 동기회도 첫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고양시 동기회

## 취미모임 활동 ●●●

### ① 호산회 (경영80 산악회)

- ◆ 5월 14일 김포 문수산성 산행보고

호산회의 5월 산행은 김포시내에서 가장 높은산(376m)인 문수산으로 당산역에 모여 출발하였다. 당산역에서 문수산까지는 1시간 10여분 거리로 최승석, 이창우, 김태술 동기와 같이 타고 갔는데, 난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강을 따라 이리저리 박학다식한 이창우 동기의 썰(?)을 듣다보니 지루함이 없이 문수산에 도착하였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간단히 기본체조로 함께 몸을 풀고, 베테랑 산악인인 지인이 최근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었다는 최승석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다리, 발목도 꼼꼼하게 풀었다. 초반에부터 급경사 오르막이었는데, 산행대장 이창우 동기가 이곳만 급경사라 힘들지만 나머지는 모두 편안한 길이라 해서 안심하고 올랐으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네댓 번은 그런 곳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숙종 때 축성한 문수산성을 따라 정상에 오르니, 임진강, 한강, 염하강이 보이고, 애기봉과 북쪽 송악산 개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산 길은 빠른 코스로 내려왔는데 전체 산행거리는 5.4km이고, 약 13,000 걸음이었다. 강화도로 건너가 민물장어 또는 밴댕이 회무침을 먹고 싶었으나 심각한 교통정체로 포기하고, 서울로 오는 길목의 맛 집에서 메기, 참게, 빠가사리 및 쫄깃한 수제비, 맛있는 떡, 라면사리로 이루어진 얼큰한 매운탕에 막걸리 및 빨간 소주로 뒤풀이하고, 다음 6월 팔봉산 산행을 기약했다.



호산회, 문수산성에서

- ◆ 6월 18일 강원도 홍천 팔봉산(예정) - 여름을 맞이하여 기분전환을 위해 조금 멀리 갈 예정이다. 팔봉산(327M)은 양재 청계산 높이의 반 정도이며 비경과 기암괴석으로 8개 봉우리마다 뷰가 멋지며 허리를 감싸 도는 홍천강과 함께 감탄을 자아낸다.
- ◆ 7월 19일 강원도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골(예정) - 일명 캐녀닝(Canyoning)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흥내 낸 계곡물살을 따라 걷는 트레킹하려고 한다.

### ② 경영80골프회 : 6월 7일(화), 청평 마이더스 밸리, 18명 참가



##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 고글회 4월 골프모임 ●●●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12시
- 장소 : 라데나CC

코로나 시국으로 그동안 진행 못했던 81경영 골프모임을 2년 만에 춘천에 있는 라데나CC에서 32명이 모여 골프모임을 진행했다. 골프장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조 편성에 따라 좋은 날씨에 즐겁게 라운딩하고, 다시 클럽 하우스에 모여 저녁식사와 모임 식순을 진행했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성적에 따라 상품을 수여하지 않고 경품추첨으로 상품을 받아가도록 했는데, 박상원 동기의 기능성 건강식품, 김용철 고글회 회장의 아이웁스 선물세트, 김현수 동기의 식대 100만원, 송영섭 동기의 백화점상품권 100만 원 등 11명 동기들의 협찬으로 모두 양손에 한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행복을 누렸다. 다음 모임은 9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무리 했다.



고글회

### 미국에서 온 동기들과의 만남 ●●●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6:30
- 장소 : 삼성동 해담채

미국 거주하는 동기가 오랜만에 귀국하여 저녁모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의 미국계 회사에서 PM으로 근무 중인 이성순 동기가 오랜만에 귀국하여 삼성동의 한 식당에서 15명의 동기들과 함께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엔 뉴저지에 거주중인 기동환 동기도 참석하여 인척이 저술한 시집을 전달해 줬다. 다들 건강한 모습들을 확인하는 좋은 자리에서 즐겁게 건배하며 식사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동기들과 함께

## 86 회장 유재열 / 총무 강봉주

### 마루회 소식 ●●●

86학번 동기회는 싱그러운 봄날인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인왕산에 올랐다. 반가운 동기들과 산행을 하며 봄날의 정취를 즐기고 창익문 근처 식당에서 뒤늦게 합류한 동기들 포함해서 18명의 동기들이 식사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루회는 산꼭대기를 뜻하는 '마루'에서 따와서 산악동호회 이름으로 명명하였음)



마루회



## 호림원(虎林元)소식 ●●●

5월 26일 토요일에는 86학번 골프동호회(호림원) 모임을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가졌다. 4팀 16명이 모여서 즐거운 라운딩 후 닭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다. 옆의 사진은 티오프 시간 때문에 단체사진은 못 찍고 라운딩 중간에 두 팀만 촬영한 사진이다. (골프동호회 이름인 호림원은 홀인원과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골프동호회 이름으로 명명하였음)



호림원

## 두목회 소식 ●●●

우리 고경86동기회는 6월 9일 6시 반에 강남 교대역 근처에서 근무를 마치고 어느 한 식당에서 골프도 등산도 아닌 순수 친목만을 위한 두목회 모임을 가졌다. 86동기회 집행부가 코로나 상황 중에 맡게 되어 실내 모임을 전혀 가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거의 2년 만에 두목회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번 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밴드 신청자는 많았지만 갑자기 부인이 코로나 확진되어 못 온 동기,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불참한 동기도 있어서 이날 모임에서는 건강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제 나이가 만 55세 임금피크제에 도달하여 직장은퇴나 이직을 고려중이거나 기업임원인 동기들도 직장에 젊은 CEO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장관이나 금감원장도 70년대 초반생이므로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잘 버티자고 서로를 격려하였고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건강과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통 1차는 모임경비 모은 것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만 이번엔 동기회장이 후원했고, 2차는 회계사 동기가 후원하였으며 모임 참석자들은 후배 장학금 1만원씩 모금하여 적립하였다. (86동기회 친목모임인 두목회는 두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갖는다고 하여 두목회로 명명하였음)



두목회

## 89 회장 김평국

### 2022년 상반기 경영89 골프모임

#### (골프 회장: 이정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랜만에 상반기 골프모임을 지난 5월 15일(일) 경기도 시흥 소재 '솔트베이CC'에서 가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총 3팀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한(?)을 시원한 샷에 날려 보낸 즐거운 자리였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9월 17일(토) 하반기 골프모임에는 좀 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기를 바라며 모임을 마무리 했다.



상반기 골프모임

#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윤소담(경영21)

##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일상을 회복중인 KUBS Ladies의 소식 ...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지나 2022년에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삭막하던 교정에는 학우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비어있던 교실은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와 함께 KUBS Ladies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 중에 있다. 지난 2년간 닫혀 있었던 여자휴게실 개방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수시이벤트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온라인만큼 오프라인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성년의 날을 맞아 장미꽃 배달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학우들의 큰 관심과 성원 하에 오랜만의 오프라인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매학기 진행되는 행사인 'Dream Concert'는, 고려대학교 선배님을 연사로 모시고 연사님의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강연을 듣는 행사다. 이번 드림콘서트는 한국 수출입 은행에서 근무 중인 김은지 교수님(경영12)의 강연이 6월 3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금융 공기업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가 있었고, 참여한 학우들은 이번 행사가 자신의 진로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 나가는 데까지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이 올해 오프닝 행사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굿이브닝은 약 8개월 동안 커리어와 인생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써, 회계, 법조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멘토로 참여해주신다. 대면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화면을 뚫고 전달되는 멘토님들과 멘티들의 열정, 기대감과 함께 오프닝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2년 창립된 KUBS Ladies는 올해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여자 교수 또 는 학우로서 자부심을 항상 지키고 KUBS Ladies의 한 멤버로 Pride를 지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모임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있을 KUBS Ladies 10주년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고 싶은 교수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계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l@kubsal.or.kr





고려대학교 개교117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

## ‘고려대학교 개교 117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행사 개최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경영70)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고려대와 고려대 교우회는 5월 5일(목)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17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사회봉사상 ▲크림슨 어워드(발전공로상) ▲KU Pride Club Award ▲석탑 강의상,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 ▲교직원 포상 ▲장기근속자 표창 ▲고대가족상 ▲모범지부 분회 표창 등의 시상식이 있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전 KBO 총재, 경영70)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물리79)이 수상했다.

구본능 교우는 1976년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럭키금성 상사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금성사, 희성금속 부회장, 희성그룹 회장직을 차례로 역임하며 희성그룹을 발전시켜 한국산업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11년부터 KBO 총재에 취임해 새 구장 건립사업, 야구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한국야구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2015년부터 교

우회 학술상 시상금 재원을 매년 기탁하며 모교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공헌해 왔다. 시상식에서 구본능 교우는 “감독, 코치, 선수가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 것은 야구뿐이다. 그것이 곧 협동이다. 허리띠를 하는 운동은 야구와 골프뿐이며 야구공의 실밥 108개는 마치 불교에서의 108번뇌를 연상시키는데 그만큼 공을 던지기 전에 투수의 수많은 고민이 담겨있을 것”이라며 야구 사랑에 빚대어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태원 교우는 1983년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SK상사 부장을 시작으로 SK그룹 회장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ESG 및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치에 주목해 글로벌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으로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국내 경제계, 체육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고려대 SK미래관 건립과 취업연계형 반도체공학과 설치 지원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시상식에서 최태원 교우는 “대학을 졸업한지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대학이 제게 준 가르침을 잊지 않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상은 ‘봉천동 슈바이처’ 윤주홍의원 원장(의학62)과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정외64)에게 돌아갔다. 윤주홍 교우는 의과대학 졸업 후 섬마을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진료활동으로 헌신하였고 관악장학회 설립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등 폭넓은 봉사를 펼쳐왔다. 정성현 교우는 민주화 운동, 우리밀살리기운동, 남북교류에 앞장서왔고 2018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맡아 미래지향적 실천을 통해 사회통합의 의미를 일깨우는데 이바지했다.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Crimson Award(발전공로상) 수상자로는故 정운오(상35) 교우 가족, 남경애(의학57) 원장, 김정호(무역85) 베어베터 대표가 선정됐다.故 정운오 교우의 유가족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유산 202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모교는 자연계캠퍼스의 ‘정운오IT교양관 건립기금’으로 첨단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을 갖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경애 원장은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인재가 양성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왔다. ‘무록 남경애 고려대 의대 교우회 의학대상’, ‘여자교우회 장학금’, ‘남경애 장학금’, ‘Again, 65캠페인’ 등으로 쾌척했다. 베어베터 대표인 김정호 교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고려대 발전기금, 중국 교환학생 지원 장학금, 공과대학 건축기금, 교육 환경개선 기금 등을 기부해왔다. 최근에 기부된 4.18 기념관 증축을 위한 기금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구축, 창업지원센터 확대에 쓰여질 예정이다.

대를 이어 모교에 재학하는 가족에게 시상하는 고대가족상은 강인경(KNA4회) 3대 교우가족, 그리고 윤상미(불문84) 5인 교우가족이 수상했다. 교우회 모범지부상은 서초교우회 장치평(경영79) 회장이 대표 수상했으며 교우회 공로상은 91학번 ‘입학30주년기념 행사’를 이끈 교우들과 81학번 ‘입학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 교우들이 수상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부강의를 담당한 교수 중 학기말 수강자의 강의평가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5%에 드는 교원 135명이 석탑강의상을 받았다. 또한 전년도 기술이전이 높은 연구자 중 상위 연구자들 15명에게는 석탑기술상이, 전년도 연구업적 중 상위 3%를 차지한 교원 55명에게는 석탑연구상이 주어졌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 구본능(경영70) 최태원(물리79)



교우회 모범지부상 – 장치평(경영79)



사회봉사상 – 김정호(무역85)





김재호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도 세계 속에 빛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AI, 빅데이터 등 새 시대의 과제를 연구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키우자. 법인도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제 3년 후, 다가오는 2025년은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고려대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고려대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으로서의 소명을 담은 고려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은 “지난 117년간 모교가 이루어낸 여러 성과들은 수많은 교우들의 노력과 헌신을 밑거름으로 했다. 모교는 세계적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교우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교우는 사회적 공헌과 모교 사랑의 실천으로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우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5일은 개교기념일이자 어린이날이다. 고려대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 및 고대만의 특성을 살려 캠퍼스, 박물관, 도서관을 개방하고 교우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학내 곳곳에서 ▲사회공헌 관련 퀴즈 및 체험 프로그램 ▲VR 및 AR체험, 메이킹 체험 ▲교내 방송시설 체험 ▲고려대 입주 창업기업들의 체험 존 운영 ▲동아리 공연(풍물, 버스킹, 재즈, 탈춤) ▲고려대 응원 배워보기 ▲캘리그래피 및 서예체험 ▲박물관 및 도서관 체험 ▲교우회와 함께 하는 나눔 바자 ▲5개 운동부 학생들과 스포츠 체험 ▲추억의 졸업사진 촬영 ▲1:1 입학 상담 ▲고대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검진 상담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제기 만들기, 전통금박찍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www.korea.ac.kr](http://www.korea.ac.kr)





## 62년 전, 자유를 위한 용기를 기리며

4·18의거 62주년 헌화식 열려  
온·오프라인 구국대장정 진행

4월 18일(월), 모교는 4·18 기념탑 앞에서 4·18 의거 62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내외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명호 교우회장, 정진택 모교 총장, 박규직(상59) 4월 혁명 고대 회장, 윤진호(산업공85) 석주회장 등이 기념탑에 헌화했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우리 교우회는 선배님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의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섰던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기며 모교 구성원의 가슴이 4·18 정신으로 힘차게 약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지난 2년간 진행 되지 못했던 ‘4·18 구국대장정’이 이어졌다. 행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인원제한 없이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모교 정문에서 출발해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행진한 후 4·19 기념탑에서 참배했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비대면 행사에서는 구국대장정과 동일한 거리인 8.13km를 참가자들이 각자 걸으며 동참해 뜻 깊은 날을 기념했다.

제622호 교우회보 발취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2년 동안 잠든  
캠퍼스를 깨우고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캠퍼스**

대면수업을 시작으로  
동아리 박람회, 대동제, 입실렌티 등  
이름만 들던 행사가 재개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듯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강의실, 학생식당, 도서관 열람실에  
아직도 투명 가림막이 세워져 있어 단절된  
느낌은 여전하지만, 예전만큼 코로나로 인한  
긴장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중앙광장에서



3월  
동아리 박람회



4월  
벚꽃 만개한 애기능



4월  
4·18 구국대장정



5월  
고대인의 날



5월  
석탑대동제



5월  
입실텐티





## 세계적 미술거장 이우환 작가 작품, 고려대 경영대학에 설치돼 대학 최초 이우환 작가의 「관계항-장소성」 작품 설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배종석)은 5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세계적인 미술거장 이우환(86) 작가의 작품 [관계항(Relatum) - 장소성(The Location)](이하 '관계항-장소성') 설치 행사를 개최하였다.

점과 선을 담은 철학적 회화로 한국과 일본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 미술계의 대가 반열에 오른 그가 본교 경영대 교정에 높이 1m 40cm의 자연 석과 가로·세로가 각각 4m, 3m에 달하는 거울 스테인리스판으로 이뤄진 <관계항> 신작을 설치하였다.

이번 이우환 작가의 작품 '관계항-장소성'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인 철판과 자연이 만든 돌이 예술가의 중재로 만나 상호 존재론적 관계항에 대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번 작품을 통하여 일상의 잔디밭이 비일상

의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장소를 여는 공간으로 치환됐다.

작품 제작을 위해 이우환 작가는 지난해 하반기 본교 교정을 찾아 답사한 뒤 4~5개월간의 구상을 거쳐 작품 콘셉트를 정했다고 한다. 국내 대학에서 동상 등의 기념 조형물 대신 세계적 거장의 신작 예술품을 제안해 배치한 것은 드문 사례다.

이번 이우환 작가의 작품은 이우환 작가가 대학에 작품을 설치한 첫 사례로서 대학 캠퍼스의 열린 공간에 설치된 공공예술을 통해 고려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우환 작품 설치 행사는 1부 이우환 예술론 학술행사와 2부 작품 제막식으로 구성되었다. 1부 '이우환의 삶과 예

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우환 예술론 학술행사는 상하이 통지대학의 석좌교수인 이용우 교수의 강연과 울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이용우 교수는 “일상이 펼쳐지는 캠퍼스 잔디밭 위에 우주와 하늘을 담은 거울 판을 놓아 우주와 우리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는 구상이었다.”면서 “이 작가의 다른 야외 설치작품과 마찬가지로 작품과 작품이 놓이는 장소, 바라보는 관객이라는 삼자 간의 수평적이면서도 평등한 관계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정진택 총장과 배종석 경영대학장, 이용우 교수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우환 작가가 보내 온 영상 메시지를 시청 후 작품 제막행사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영상을 통해 이우환 작가는 “이번 제 작품은 너무 싱거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커다란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스테인레스 판을 거울처럼 갈아서 잔디밭에 놓고 그 위에 돌을 얹은 것일 뿐인데요, 그러나 이 단순한 하나의 만남과 조합에 의해 일상성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어떤 반짝하는 우주적인 하나의 찰나가 지속되고 보편화되는 장을 여는 것이 이번에 제가 제시한 작품이라고 봅니다.”라고 작품의 의미를 전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역사인 '이우환'작가는 최근 프랑스 아를 '오텔 드 베르농'에 상설 전시관인 '이우환 아를'을 개관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지의 재현성을 거부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자연 발생적인 모노화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작가로서, 작품과 그것이 놓이는 장소, 그리고 바라보는 관객이라는 삼자 간의 수평적이면서도 평등한 관계에 주목하며, '관계항' 조각 작품 시리즈를 통하여 국내외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 설치를 주관한 배종석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작가의 철학이 반영된 '관계항-장소성'이라는 작품은 인류가 좋은 삶을 누리도록 미래의 가치를 함께 창조해 간다는 경영의 본질과 잘 부합한다.”며 “인류의 좋은 삶을 위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이번 작품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



www.koreaackr



# 2022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2.1.1~2022.6.22 기준)

| 〈500만원〉 |     |      |
|---------|-----|------|
| 57 학번   | 이상일 | 자문위원 |
| 65 학번   | 이학수 | 자문위원 |
| 65 학번   | 허광수 | 자문위원 |
| 67 학번   | 허창수 | 명예회장 |
| 72 학번   | 김 윤 | 부회장  |
| 75 학번   | 허경수 | 부회장  |
| 77 학번   | 이만득 | 부회장  |
| 89 학번   | 정의선 | 부회장  |

| 〈300만원〉 |     |     |
|---------|-----|-----|
| 92 학번   | 김지용 | 부회장 |

| 〈100만원〉 |     |      |
|---------|-----|------|
| 64 학번   | 강동식 | 부회장  |
| 65 학번   | 김신경 | 자문위원 |
| 66 학번   | 박성훈 | 자문위원 |
| 66 학번   | 최용순 | 자문위원 |
| 66 학번   | 황병조 | 자문위원 |
| 70 학번   | 김광식 | 부회장  |
| 70 학번   | 한대근 | 부회장  |
| 72 학번   | 양승은 | 부회장  |
| 73 학번   | 정기련 | 부회장  |
| 74 학번   | 강호갑 | 부회장  |
| 77 학번   | 이철우 | 부회장  |
| 79 학번   | 김 정 | 부회장  |
| 80 학번   | 변대현 | 부회장  |
| 80 학번   | 정학현 | 부회장  |
| 82 학번   | 여용동 | 부회장  |
| 82 학번   | 최준영 | 부회장  |
| 87 학번   | 홍중성 | 부회장  |
| 88 학번   | 전찬혁 | 부회장  |
| 90 학번   | 송승민 | 부회장  |
| (익명)    |     |      |

| 〈50만원〉 |     |      |
|--------|-----|------|
| 60 학번  | 박판제 | 자문위원 |
| 62 학번  | 최부용 | 상임이사 |

|       |     |      |
|-------|-----|------|
| 63 학번 | 장신규 | 자문위원 |
| 66 학번 | 박창덕 | 상임이사 |
| 75 학번 | 최강호 | 상임이사 |
| 78 학번 | 임재풍 | 상임이사 |
| 79 학번 | 이상현 | 상임이사 |
| 79 학번 | 이주배 | 상임이사 |
| 79 학번 | 정몽진 | 상임이사 |
| 80 학번 | 김용현 | 상임이사 |
| 81 학번 | 김영민 | 상임이사 |
| 81 학번 | 홍홍석 | 상임이사 |
| 84 학번 | 배형근 | 상임이사 |
| 86 학번 | 정서진 | 상임이사 |

| 〈30만원〉 |     |      |
|--------|-----|------|
| 74 학번  | 김동선 | 상임이사 |

| 〈20만원〉 |     |      |
|--------|-----|------|
| 63 학번  | 전현찬 | 상임이사 |
| 69 학번  | 박지덕 | 상임이사 |
| 71 학번  | 이태희 | 상임이사 |
| 92 학번  | 윤선규 | 상임이사 |

| 〈10만원〉 |  |  |
|--------|--|--|
| 이 사    |  |  |

|       |     |     |         |
|-------|-----|-----|---------|
| 53 학번 | 이호용 |     |         |
| 54 학번 | 김진배 |     |         |
| 55 학번 | 김기인 |     |         |
| 58 학번 | 함명돈 |     |         |
| 59 학번 | 강창석 | 권상진 |         |
| 60 학번 | 김선휘 | 이웅휘 |         |
| 61 학번 | 김길남 | 박순자 | 채규학     |
| 62 학번 | 송준일 |     |         |
| 63 학번 | 이영무 |     |         |
| 64 학번 | 김용운 | 정제성 |         |
| 65 학번 | 이창윤 | 최병일 |         |
| 66 학번 | 김홍재 | 신진철 | 신현옥 양치수 |
| 67 학번 | 김용동 |     |         |
| 69 학번 | 신현웅 | 조현룡 |         |

|       |     |     |         |
|-------|-----|-----|---------|
| 71 학번 | 권관순 | 최윤도 |         |
| 72 학번 | 문덕인 | 이원창 |         |
| 73 학번 | 김순배 | 현기춘 |         |
| 74 학번 | 윤명상 |     |         |
| 75 학번 | 김우진 |     |         |
| 76 학번 | 김덕만 | 배유현 | 서윤덕 이법호 |
|       | 이원직 | 장진원 | 조구휘     |
| 77 학번 | 이완재 | 이용모 |         |
| 78 학번 | 경석현 | 박재호 | 신학기     |
| 79 학번 | 김덕년 | 민경섭 | 안성경 정춘돌 |
| 80 학번 | 김종국 | 정백조 |         |
| 81 학번 | 김재범 | 박지수 | 유한수 이상혁 |
| 82 학번 | 장태수 |     |         |
| 84 학번 | 김준호 | 최병권 | 정병욱     |
| 85 학번 | 구준서 | 임 욱 |         |
| 86 학번 | 양근섭 | 오인환 |         |
| 93 학번 | 염규상 |     |         |
| 96 학번 | 주민근 |     |         |

| 일반교우 〈3만원〉 |        |     |     |     |
|------------|--------|-----|-----|-----|
| 51 학번      | 전윤자    |     |     |     |
| 52 학번      | 김영섭    |     |     |     |
| 53 학번      | 엄기정    |     |     |     |
| 54 학번      | 김동진    | 이종환 | 조해연 | 태호팔 |
| 55 학번      | 고재균    | 김영식 | 김정식 | 남치현 |
|            | 신범현    | 윤희표 | 이득주 | 이형구 |
|            | 황창규    |     |     |     |
|            | (30만원) |     |     |     |
| 56 학번      | 김지영    | 신명철 | 윤길림 | 이연상 |
|            | 조해균    |     |     |     |
| 57 학번      | 구인본    | 김문석 | 김재곤 | 이병길 |
|            | 정기원    | 정우중 |     |     |
| 58 학번      | 박성업    | 이종철 | 천정호 | 홍종익 |
| 59 학번      | 강해홍    | 김무남 | 김주환 | 노규채 |
|            | 변홍주    | 오의희 |     | 윤석문 |
|            | 이윤제    | 이응두 | 이창용 | 한순영 |
| 60 학번      | 구자욱    | 김광평 | 김삼경 | 노수범 |
|            | 성윤경    | 신준호 | 윤재순 | 이일구 |
|            | 최덕형    | 하정일 | 한기정 |     |

|       |     |     |     |     |       |     |               |     |     |             |           |     |     |
|-------|-----|-----|-----|-----|-------|-----|---------------|-----|-----|-------------|-----------|-----|-----|
| 61 학번 | 김도민 | 김소현 | 김윤장 | 김택원 | 72 학번 | 고재영 | 권완상           | 김영만 | 류병기 | 95 학번       | 신미혜       | 이규열 | 지재홍 |
|       | 김홍곤 | 김활자 | 박무용 | 박진자 |       | 박동원 | 장석산           | 전종환 | 정우성 | 96 학번       | 김하현       | 백웅조 | 손희중 |
|       | 안희민 | 왕규철 | 유기현 | 윤영범 |       | 조승식 | 황순기           |     |     | 98 학번       | 이재등       | 이진상 | 최종민 |
|       | 이근창 | 이봉현 | 이 완 | 이원태 | 73 학번 | 손대정 | 홍문순           |     |     | 00 학번       | 박 진       |     |     |
|       | 이학주 | 채창현 | 황인강 |     | 74 학번 | 구본량 | 박영식           | 박용운 |     | 03 학번       | 오병원       | 추창화 |     |
| 62 학번 | 구자웅 | 김광태 | 김세영 | 김인재 | 75 학번 | 박세현 |               |     |     | 04 학번       | 김형태       | 송 진 |     |
|       | 김종진 | 김효명 | 마재현 | 배영일 | 77 학번 | 김대철 | 이찬근           | 임동하 |     | 05 학번       | 강종범       | 이근호 | 이현호 |
|       | 백효휘 | 오무환 | 유병하 | 윤재환 | 78 학번 | 김병수 | 김일용           | 박수영 | 안승배 | 06 학번       | 정재욱       |     |     |
|       | 윤종철 | 이인영 | 이호웅 | 정우진 |       | 유승식 | 이한구           | 정세중 |     | 08 학번       | 신재호       |     |     |
|       | 조승수 |     |     |     | 79 학번 | 김홍곤 | 류병완           |     |     | 09 학번       | 송명근       | 전태희 |     |
| 63 학번 | 김소부 | 김시균 | 김일웅 | 김지창 | 80 학번 | 김광림 | 김병조           | 최유성 |     | 10 학번       | 김도형       |     |     |
|       | 박종일 | 백선기 | 옥규석 | 윤익순 | 81 학번 | 김신철 | 김용운           | 정원중 |     | 11 학번       | 송웅기       | 한은경 |     |
|       | 정완영 | 한건수 |     |     | 82 학번 | 김지환 | 윤준섭           | 최인섭 |     | 12 학번       | 황지민       |     |     |
| 64 학번 | 고병선 | 김동훈 | 김선욱 | 김순배 | 83 학번 | 윤여실 |               |     |     | 학번별 분담금     |           |     |     |
|       | 민선용 | 박덕배 | 안덕수 | 유명식 | 84 학번 | 강운구 | 김민권           | 김홍석 | 서동찬 | 62 학번       | 500,000   |     |     |
|       | 유성준 | 이항선 | 조종래 | 허석도 |       | 윤창섭 | 이창구           |     |     | 66 학번       | 500,000   |     |     |
|       | 현봉길 | 홍현묵 |     |     | 85 학번 | 강황배 | 기승도           | 김상태 | 신강영 | 70 학번       | 1,000,000 |     |     |
| 65 학번 | 박대인 | 이경찬 | 이정수 |     |       | 신호섭 |               |     |     | 74 학번       | 750,000   |     |     |
| 66 학번 | 김명진 | 박민규 | 박용혁 | 성순환 | 86 학번 | 강신재 | 김좌영           | 서동욱 |     | 77 학번       | 1,000,000 |     |     |
|       | 염수열 | 오창석 | 우강용 | 장철기 | 87 학번 | 김종길 | 유현규           |     |     | 83 학번       | 1,000,000 |     |     |
|       | 정 발 | 정연동 | 조대현 |     | 88 학번 | 김삼덕 | 하종문           |     |     | 평생회비 <30만원> |           |     |     |
| 67 학번 | 윤정섭 | 이장운 | 조용건 | 한기석 | 89 학번 | 고경의 | 이윤석<br>(10만원) | 정운근 |     | 77 학번       | 김형일       |     |     |
| 68 학번 | 신동원 | 이차복 |     |     | 90 학번 | 민준선 | 이은기           |     |     | 78 학번       | 권혜경       |     |     |
| 69 학번 | 김영호 | 김은영 | 정영목 | 정택모 | 91 학번 | 조성일 |               |     |     |             |           |     |     |
| 70 학번 | 강명구 | 박병천 | 제 철 |     | 92 학번 | 김재형 | 서동휘           |     |     |             |           |     |     |
| 71 학번 | 박용우 | 박장훈 | 송창열 | 최종길 | 93 학번 | 김도희 | 오명일           |     |     |             |           |     |     |
|       | 허진영 | 홍승철 |     |     | 94 학번 | 김도윤 | 방상호           | 서경덕 |     |             |           |     |     |

감/사/합/니/다.

##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48.6%

목표 16,000,000원

실적 7,77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28.8%

목표 20,000,000원

실적 5,75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47.5%

목표 164,000,000원

실적 77,900,000원

TOTAL

2022년 6월 22일 기준

목표 200,000,000원

실적 91,420,000원



달성

45.7%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대자연의 신비와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컨트리클럽



국내최초 스코틀랜드  
링크스 스타일의 정통코스

청주 Grand Country Club

전홀(27홀) 라이트 시설로 환상적인 야간 라운딩  
넓고 평탄하게 전개된 코스  
자연지형을 그대로 옮긴 울창한 수림

위치 | 옥산-오창 고속도로 서오창 IC에서 4km, 약 5분 거리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꽃화산길 51-20

대표번호 | 043)212-7111

청주 Grand Country Club

대표이사 임재풍 (경영78)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